

통설교가 MZ세대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주문진교회 청소년부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이민호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4년 5월

Copyright © 2024 Minho Lee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Effect of Tong Preaching on Faith Development in the Generation MZ : A Case Study on the Youth Group of Jumunjin Methodist Church

Minho Lee

Jumunjin Methodist Church, Gangneung, Republic of Korea

This paper is a study that has examined how Tong preaching affect the newly emerging generation of the Generation MZ in the 2020s. Also called ‘M Zee’ or ‘M Zed,’ this generation has become more controversial than any other previous generations. One has already misunderstood Generation MZ if one simply interprets the Generation MZ by the same sense as the previous generations X, Y, Z, and millennials.

Do you know about the fact that most people understand the Generation MZ as negative? If you looked at the title of this paper and have already felt reluctant to know something about the Generation MZ, it is true that you have understood the MZ to some extent. This is because the society perceives them as a ‘generation of the incommunicable.’ Generation MZ is not just a word for generations, but rather close to a word derived from sarcastic tones against them. They don’t try to humour it if it doesn’t suit their heart. They are a generation with a unique way of thinking that makes all their opponents into young boomers and old boomers when they have a different will, and

draws the line with those people.

This paper is an in-depth study of the MZ, such a generation of the incommunicable, and how Tong preaching can influence them to cast off their miscommunication and develop a positive faith.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need for Tong preaching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how to teach them the word of God fully and correctly to make the young Generation MZ a promising generation that can encompass all generations.

This paper adopts Cho Byung-ho's Tong preaching program to carry out the process together and describe results. Surely the Tong preaching program is effective in changing the way of thinking of the Generation MZ by the bible. It could be seen that they had higher concentration level and showed more interest in sermon methods using holistic bible programs than in sermons that were usually held using textbooks of other publishers.

If one understands the methodology of Tong preaching and apply it to individual churches, it is certain that the Generation MZ of this age will live with hope in the Bible, the word of God. Proper growth comes from proper education. The Generation MZ will no longer be a generation of the incommunicable, but a generation that opens up the kingdom of priests, the kingdom of God.

국문초록

통설교가 MZ세대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주문진교회 청소년부 사례 연구

이민호

주문진감리교회, 강릉, 한국

본 논문은 202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세대인 MZ세대들에게 통설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한 논문이다. ‘엠지’ 또는 ‘엠제트’라고도 불리는 이 세대는 지금까지의 어떤 세대보다도 더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MZ세대를 단순히 이전 세대인 X세대, Y세대, Z세대, 밀레니얼 세대와 같은 느낌으로 해석하면 벌써 MZ세대를 오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MZ세대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만약 이 논문의 제목을 보았을 때 MZ세대에 대해서 벌써 무언가 모를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다면 MZ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사회는 그들을 ‘불통의 세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MZ세대는 단순히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 그들을 비꼬는 투에서 생긴 단어에 가깝다. 그들은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을 맞춰려고 하지 않는다. 자기와 뜻이 다르면 상대 모두를 젊은 꼰대, 늙은 꼰대로 만들어버리고 그 사람과는 칼같이 선을 그어버리는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세대이다.

본 논문은 이런 불통의 세대인 MZ에게 어떻게 하면 통설교가 그들에게 불통을 벗어나고 긍정적인 신앙발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한 연구이다. 특히나 자기의 주장이 강한 젊은 세대들에게 통설교를 적용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서 젊은 MZ세대가 전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망한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통설교의 필요성을 제시하려는데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조병호의 통성경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함께 그 과정을 실행해보고 결과를 서술한 것이다. 확실히 통성경 프로그램은 MZ세대의 사고방식을 성경으로 바꾸는데 효과가 있다. 평소에 다른 출판사의 교재로 했던 설교보다 통성경 프로그램을 이용한 설교방식에서 더욱 집중도가 높고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통설교의 방법론을 이해하고 개교회에 적용한다면 이 시대의 MZ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희망을 두고 살아갈 것임을 확신한다. 올바른 성장은 올바른 교육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MZ세대는 더 이상 불통의 세대가 아닌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세대가 될 것이다.

목 차

표 목차	ix
감사의 글	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연구	3
연구의 방법과 범위	7
연구의 제한성	7
II. MZ 세대(MZ Generation)의 이해	9
1. MZ 세대의 정의	9
2. MZ 세대의 특징	11
3.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 세대	16
4. MZ 세대가 주장하는 MZ 세대	18
5. MZ 세대를 넘어 이제는 잘파세대(Zalpha Generation)	19
III. 통(通)설교의 이해	22
1. 통(通)설교란?	22
2. 통(通)설교가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	26
3. 통(通)설교의 필요성	29
IV. 통(通)설교의 실천	35
1. 주문진감리교회와 청소년부의 상황	35

2. 실행절차	38
3. 통(通)설교에 대한 반응 조사(설문지)	63
4. 평가(인터뷰)	74
V. 결론	79
요약 및 평가	79
결론과 제언	80
참고 문헌	83
부록	85

표 목차

<표 1>	30
<표 2>	31
<표 3>	36
<표 4>	38
<표 5>	64
<표 6>	65
<표 7>	66
<표 8>	67
<표 9>	68
<표 10>	69
<표 11>	70
<표 12>	71
<표 13>	72
<표 14>	73

감사의 글

생각해보면, 저는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 배운다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습득되고 체득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길을 원했는지, 이 어려운 길에 왜 들어서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며 이 논문을 쓴 지금도 꿈만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신 조병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목회 평생에 성경 하나만큼은 제대로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에 불쏘시개가 되어주셨고, 저로 하여금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저의 논문을 논문 되게 만들어 주시고 구석구석 부족한 논문을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간 내내 키보드를 두드려가며 열정의 강의와 자신의 습득한 배움을 거침없이 쏟아내주신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귀한 노고를 잊지 않으며 배운 만큼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내 아버지, 이덕환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고 감히 공부하겠다는 욕심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목사 아들을 두고 매일 같이 기도하며 중보기도 해주신 내 어머니, 이정혜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존재는 아들 목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어린 부목사를 더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고자 많은 배려와 시간을 내어주시며 기도해주신 이삼우 목사님과 유미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부목사의 일정 속에서 본인이 한 번 더 일을 감당해주며 헌신해 준 심정섭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며, 물심양면으로 기도해주신 주문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의 시작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삼천교회 우광성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박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함께 해준 믿음의 공동체인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들어주었기에 이 논문을 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공부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신 윤석규, 신용선 권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나가 있는 일이 많았고 그만큼 가정에 관심을 쏟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아빠, 오셨어요?” 라고 안위를 물어주었던 사랑하는 두 딸 가온, 누리에게 많이 미안하고 한편으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아무 문제 없이 논문을 다 잘 쓰길 기도하며 가정의 뒷바라지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도와준 사랑하는 아내 조혜림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024년 2월

늦은 밤 사무실 한켠 구석자리에서

이민호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연구자가 신학교 시절 ‘설교학’ 과목을 들은 적이 있다. 당시 설교학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자주 인용하시던 말이 있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들에 적절하게 전하고 설득시키는 과정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 이라는 말에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설득이라는 단어에 마음 한 편이 찝찝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설득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으니 ‘선포’ 가 되어야 맞지 않을까? 말씀으로 설득을 시킨다고 하니 마치 아랫사람이윗사람에게 비유를 잘 맞춰준다는 느낌이 들었다. 물론 설득이라는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설득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다.

아마 오늘날 목회의 강단에서 선포보다는 설득의 설교가 많은 것 같다. 설교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다. 언제부턴가 목회자는 성도의 눈치를 보고, 듣기 좋은 말씀만 골라 하고, 복 받으라는 설교가 넘쳐났다. 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넉죽넉죽 받다가도 성도의 의무에 관해 설교하면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본다. 연구자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가졌다. 축복에 관해서 설교하면 표정이 밝다. 그러나 헌신을 요구하면 그날 따라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감돈다.

설교자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두려움을 감안하고서라도 외칠 수 있어야 한다. 존 스토트는 선포 자체가 “이미 실제적인 사실의 선포며, 영화롭게 이루어지고 절대적으로 완료된 한 행위에 대한 선포며, 이제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선물에 대한 선포다.”¹ 라고 말했다. 옳은 말이다. 선포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이다.

우리는 설교 중에 과감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존 파이퍼는 그의 저서 『하나님을 설교하라』 중에서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에 맞추어 설교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설교 사역의 시작이요, 중간이요 마지막²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 중에 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해야 한다.

사람은 어린 시절 올바른 것을 듣고 보고 배워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배운다면 분명히 그 사건으로 인해 자아의 형성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³ 그러지 않았는가? 디모데는 바울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¹ 존 스토트, 『설교자란 무엇인가』 채경락 역 (서울: IVP, 2010), 71.

² 존 파이퍼, 『하나님을 설교하라』 박혜영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30.

³ 디모데후서 3장 16-17절.

인정을 받았고 그 힘으로 맡겨진 목회를 잘 감당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연구자는 어떤 방법론이 성경에 가장 가깝게 설교하고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담을 수 있을 지를 고민한 끝에 『통성경 길라잡이』를 다시 손에 쥐게 되었다. 사실 연구자가 이 책을 처음 손에 쥔 것은 2013년이다. 그때도 성경을 잘 가르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에 이 책을 들었으나 좁은 소견과 부족한 지식으로는 이 책을 다 이해할 수 없었기에 많이 도움을 얻지 못하고 책을 내려놓았다. 그러다 8년이 지난 후 이 책을 다시 들었다. 그리고 『통성경 길라잡이』 강의라면 이들에게 바른 길과 의미를 제시해줄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선행연구

연구자는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시행하기 전, 다른 여러 가지 책들과 교재들을 사용하여 설교하였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설교방식인 주제설교와 강해설교를 중심으로 설교하였다. 현재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주제설교와 강해설교라는 큰 두가지 줄기의 설교를 많이 채택하고 있다.

로날드 알렌은 자신의 저서에서 주제설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주제설교는 성경 본문에 집중하거나 어떤 주제의 성경 강해에 큰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하는 것이다.”⁴ 즉, 주제설교는 성경이 텍스트의 중심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의 관점으로부터 설교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제설교는 본문의 짜여진 틀에 매이지 않고 자유스럽게 원하는 곳에서 한 부분씩 발췌하기도 한다.

⁴ 로날드 알렌, 『강단의 비타민, 주제 설교의 재발견』 김창훈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19.

그렇다면 주제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대표적인 특징은 설교의 주제와 설교의 목적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본문 연구, 오늘의 상황과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라는 것을 요약해 준다.”⁵ 이 말은 즉, 주제가 설교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만 봐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대강 알아차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베데스다에서 전하신 사랑’ 이라고 잡았다. 제목만 봐도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 아나나 다를까 삼 대지로 나누고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시는 사랑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격려하시는 사랑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사랑은 위로하시는 사랑입니다. 라고 정한 설교문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주제설교의 특징이다.

주제설교에도 장단점이 있다. 주제설교는 꼭 성경 본문이 텍스트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언급하여 청중들이 설교에 흥미를 갖게 하고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 일면 상대적으로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강해설교보다 훨씬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하지만 이런 설교방식 때문에 주제설교는 비성서적인 설교라고 공격을 받기도 한다. 설교가 본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설교자가 자유롭게 설교를 전개시키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이야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나 시사, 아니면 문학이나 예술, 또는 스포츠 분야의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는 경우가 많으며, 회중의 아픔과 문제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답을 주기 보다는, 최신의 심리학이나 사회학으로 해답을 주는 경우가 많다.⁶

⁵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291.

⁶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70.

그러면 강해설교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해돈 로빈슨은 그의 저서 『강해설교』에서 “성경 본문의 배경과 관련하여 역사적·문법적·문자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고 알아낸 성경적 개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성령께서 그 개념을 설교자의 인격과 경험에 적용시키며 설교자를 통해 다시 청중에서 적용시키는 것”⁷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강해설교의 기초』의 저자 김서택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텍스트로 하여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맞게 해석함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갖추어 오늘 이 시대에 적절하게 적용하는 설교라고 말할 수 있다.”⁸고 했다. 이 글을 보았을 때 강해설교에 대한 두 사람의 공통적인 발언은 ‘성경 본문을 텍스트로 기준 삼아 하는 설교’라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이 강해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상하게도 주제설교로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다. 연구자가 역시 강해설교를 나름대로 준비해 보았으나 열심히 준비하고 보니 주제설교의 느낌이 나는 불편한 일이 있었다. 아마도 연구자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강해설교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강해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의 저자 이동원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설교가 강해설교라는 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정의한다. 첫째로, 성경 본문이 있어야 한다. 둘째로, 그 본문의 본래의 의미가 설명 되어야 한다. 셋째로, 본문에 나타난 보편적인 진리가 천명되어야 한다. 넷째로, 본문의 진리가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조직되고 설명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설교의 주제가 성도들의 삶속에 적용되도록 설명되어야 한다.”⁹ 라고 말했다. 이렇듯 기준을 알고 보면

⁷ 해돈 로빈슨,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21.

⁸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 : 이론편』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01) 15.

⁹ 이동원, 『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105.

강해설교도 생각한 것만큼 딱딱한 설교는 아니다.

이런 강해설교는 장단점은 무엇일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은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말씀이라던지 우리가 언급하기 꺼려했던 말씀들을 깊게 재조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강해설교에도 단점은 있다. 매주 신선하고 새로운 소재가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주제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제설교와 강해설교의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 모든걸 아울러서 냈던 결론은 성경을 한눈에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주제설교도 그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봤고, 강해설교 역시도 깊이 있는 해석 때문에 성경을 바라보는 넓은 시야가 없다는 점이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설교할 때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물론 그때는 통성경이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늘상 해오던 말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이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고,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틀이 생기며, 앞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강의할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두 차례에 걸친 오리엔테이션(O.T)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통성경 『CBS바이블칼리지』에 있는 두 과목인 ‘왜 어렸을 때부터인가?’와 ‘통성경 7트랙’이라는 강의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기르자고 하였다. 그랬더니 연구자도 깜짝 놀랐다. 이것이 과연 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이들의 가슴에 성경으로 불을 지필 수 있을까 했는데, 연구자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연구자의 아내가 들은 얘기가 있다. 하루는 2주차 O.T가 끝난 뒤 그날 밤에 에게 와서 말했다. “A선생님이 말씀이 너무 기다려진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 아이들이 설교를 대하고 듣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다. 집중하지 않는 아이들의 집중도가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렇게면 통설교에 기대를 걸만 하겠다는 생각에 통설교를 시작했다.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논문을 쓰기 위하여 연구자의 목회적 현장에서 1년 동안 실행해보고 적용한 후에, 대상자들에게 얼마나 통설교가 영향력을 주었는지에 대한 조사, 평가, 분석을 해보는 현장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1장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과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과 범위, 연구의 제한성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MZ세대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MZ에 대한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통설교에 대한 이해라는 주제로 서술하였다. 통설교가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4장에서는 통설교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의 상황과 실행절차, 통설교에 대한 반응과 인터뷰를 서술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결론을 요약 정리한다.

연구의 제한성

본 논문은 “왜?” 라는 절대적인 이유가 필요한 MZ세대에게 성경을 통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와 통설교가 그들에게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상관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은 대한민국 MZ세대에 한정적으로 제한하며, 더 좁게는 이 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에 위치한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의 상황과 회중의 상황만을 고려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기간으로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52주 과정이며, 이 기간이 끝난 후에 설문지를 통해 평가를 하고 조사하였다. 다만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적용했던 방법이기에 모든 상황에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짐을 밝힌다.

제 II 장

MZ세대(MZ Generation)의 이해

MZ세대의 정의

‘MZ세대’ 이 단어는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쬐은 들어본 용어일 것이다. 각종 방송에서나 인터넷 매체, 어느 단체나 개인에게서 이 단어가 자주 언급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실로 이 단어에 집중한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면 MZ세대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긍정의 의미로 다가왔을까, 아니면 부정의 의미로 다가왔을까? 대부분의 세대에서 MZ세대는 말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본적인 예절과 예의가 없는 세대라는 의미로 더 가까이 다가왔다. 사실 MZ세대 이전에는 Z세대, 밀레니얼세대, Y세대, X세대, N세대라는 표현들도 있었다. 그들 역시도 기존 세대의 틀을 깨며 나온 세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N, X, Y, 밀레니얼, Z세대에는 그 세대가 주장하는 바 특수성이 있고 자신의 PR을 분명히 하는 세대라고 이해했지, 지금의 MZ세대처럼 상식이 통하지 않고 기본 예절과 예의가 없는 불통의 세대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MZ세대는 이전에 있었던 세대들의 느낌과 뉘앙스가 조금 다르다. MZ세대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고 있다. 세대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담은 세대임에 틀림없다. 기성세대는 무슨 안 좋은 일만 있다면 MZ, 무슨 이해가 안되는 일만 있다면 MZ, 예절과 예의가 없이 보이면 MZ세대라고 말하니 MZ세대는 분명 사람들에게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MZ세대는 정확히 어떤 세대를 말하는 것일까? MZ의 M은 1980년대에서 1989년까지에 태어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며 이들을 밀레니얼 세대(Millennial Generation)라고 부른다. MZ의 Z는 1990년부터 2000년 초반까지에 태어난 세대들을 말하며 Z세대(Generation Z)라고 부른다. 그래서 연도 수로 계산해보면 1980년생 초반, 약 40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인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일컬어 MZ세대라고 칭한다. (2024년 기준) 그런데 이 숫자의 개념이 MZ세대를 지칭하는 진짜 범위일까? 사람들이 말하는 MZ세대라는 것이 정말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MZ는 기성세대와 소통하지 못하고, 매우 이기주의적이며, 공동체적 의식이 없고, 자신의 더 나은 삶과 방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를 안위를 돌보는 자들을 향하여 기성세대가 붙인 조롱의 단어이다.

실례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코미디나 여러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MZ세대를 꼬집는 영상들이 자주 등장한다. 코미디의 특징 중 하나가 사회를 풍자하거나 정치나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인데, 코미디언들이 MZ세대의 현상과 분위기를 고스란히 흉내내며 짧은 몇 분의 영상의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0만회 이상이 넘어간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에 관심있어 하고 시청했다는 것인지 알 수 있다. 거기에는 기성세대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행동과 말들이 나온다. 직장생활 중에 이어폰을 끼고 업무를 본다든지, 가게에 손님이 와도 맞이를 하지 않고 앉아 있는다든지, 퇴근시간이 되면 하던 일도 내던지 뒤도 안돌아보고 칼같이 퇴근한다든지 하는 등등... 기성세대가 상상도 하지 못할 행동들이 그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면 ‘ㅋ’를 수없이 달며 배꼽 빠지게 웃고 공감한다는 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린다. 그렇다. MZ세대, 그것은 너희들이 특별하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표현을

MZ세대라는 단어에 담고 있다.

MZ세대의 특징

그러면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자. 조직리더십코칭원의 대표인 김영기는 자신의 저서인 『MZ세대와 꼰대 리더』에서 MZ세대의 특징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 1) Equal(수평적 소통)
- 2) Voice(자기 주장)
- 3) Reward(빠른 보상)
- 4) IT Native(IT 원주민)
- 5) Private(사생활 중시)
- 6) Connected(모바일 연결)

김영기는 위의 여섯 가지 항목의 첫 글자를 따서 EVRIPC(에브리피시)라고 부르고 있다. 먼저 EVRIPC의 첫 번째인 Equal(수평적 소통)은 MZ세대가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다. 그들은 자신이 머무른 직장 안에서 상사들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 일방적 지시가 아니라 질문과 경청,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기대한다. 반면에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딴소리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하라.”이며, 이렇게 소통하는 리더를 만나면 MZ 직원들은 사표를 고려할 정도로 고민하기 시작한다.¹⁰ 연구자는 이것을 ‘되는 대화’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되는

¹⁰ 김영기, 『MZ세대와 꼰대 리더』 (서울: 좋은땅, 2022), 49.

대화'를 원한다. 그러나 현실은 '되는 대화'가 아니라 '굽히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번째, Voice(자기 주장)은 MZ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리더가 방향성을 가지고 직원들에게 지시할 때에 그들은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안과 오히려 리더보다 더 좋은 방향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상사가 이 말에 대해 충분히 수궁을 하고 받아들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상사는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불편해하고 흥분한다. 또 하나는,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 냉정히 잘라내며 그 문제에 대해서 집단책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이 MZ세대의 특징이기도 하다.

세 번째, Reward(빠른 보상)이다. 이들의 명제는 더 멀리, 더 높이가 아니라 더 빠리이며, 현재의 직장에서 끝까지 함께할 생각도 별로 없다. 다른 직장에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미련 없이 이직을 선택하는 세대이다.¹¹ 연구자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자주 들여다본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생각들과 개인의 주장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하루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이직을 놓고 고민하는 제목이 흥미로워 들여다봤는데, 내용인 즉 오랫동안 몸 담았던 직장을 놓고 더 나은 연봉을 주는 회사로 떠나는 것이 맞냐는 글이었다. 연구자도 고민이 되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글 밑에 달린 댓글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의 생각이 고민할 것도 없이 이직을 선택하라는 답변이었다. 그 글을 보면서 현실은 냉정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IT Native(IT 원주민)이다. Native는 원주민이라는 뜻인데,

¹¹ Ibid., 61.

태어나자마자 PC와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성장했다는 의미이다.¹²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워드자격증이나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시험이 인기 있었고 그것을 자기의 이력서의 스펙으로 삼는 일들이 많았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그런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한글과 컴퓨터, 엑셀, 파워포인트를 능숙하게 잘 다룬다. 언젠가 지인을 통해서 들어본 말 중에 “대한민국은 매뉴얼이 필요 없는 나라” 라고 했던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러한 듯 하다. 사용설명서를 읽을 새도 없이 새로 구입한 카메라의 기능을 파악하고, 사용설명서를 읽을 새도 없이 스마트폰을 탐색하며, 사용설명서를 읽을 새도 없이 각종 가전의 버튼을 이용해서 조작법을 깨우친다. 이제는 자격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은둔 고수들이 비밀비재하다. 이런 MZ세대들의 실력을 기성세대는 따라오지 못한다. 늘 마우스로만 컴퓨터 일을 해왔던 부장이 단축키 활용하는 MZ세대를 이길 수 없다. 이곳에서부터 벌써 옛날 사람과 요즘 사람으로 선을 긋는다.

다섯 번째, Private(사생활 중시)이다. 기존 세대는 과거에 초과근무 수당 욕심에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반겼지만 오늘날의 MZ세대는 다르다. 돈을 더 준다고 해도 야근은 싫어한다. 정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고 싶은 ‘사생활 중시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¹³ 어느 한 사이트의 글이 기억난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였는데, 신입 간호사가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체크하다가 퇴근시간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일은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퇴근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다. 또한 직장의 퇴근 이후에는 직장의 어떤 사람의 연락도 받지 않는다. 아니, 직장 상사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 더 옳겠다. 나의 근무 시간 이후까지

¹² Ibid., 69.

¹³ Ibid., 75.

당신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마인드가 MZ세대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마지막으로, Connected(모바일 연결)이다. 조금 전 네 번째에도 말했듯이, 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전기기를 만지고 자라왔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는 이들의 교육에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물건들이다. 부모는 종이책 대신 e-book을 선택했고, 각종 공부와 지식 습득은 태블릿PC를 선택했다. (사실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업계에서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니 웃픈 장면이, 어린 아이가 CT phone이나 PCS phone 화면에 엄지와 검지를 대고 계속해서 벌리는 모습이 연출된 것이다. 그러다보니 MZ세대는 직접 눈 앞에서 소통하는 대화보다 전자기기를 통해 소통하는 일이 더 익숙하다. 왜냐하면 감정소모가 덜하기 때문이다. 대화보다 전화가, 전화보다 문자가 더 편한 세대인 이들은 카카오톡의 마지막 메시지를 끝까지 확인하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며 상사의 연락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데 연구자가 바라보는 MZ세대의 특징이 또 있다.

- 1) 빠른 포기
- 2) 위라벨

MZ세대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 중 하나는 ‘빠른 포기’이다. 이들은 정말 포기가 빠르다. 기성세대의 말을 빌리자면 끈기 있고 진득하게 주어진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 이호건이 쓴 『조용한 퇴사』에 조용한 퇴사라는 말은 영어로 Quiet quitting인데 이 말을 직역하면 조용히 그만둔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한다. 직장을 그만두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과 업무 범위 내에서만 일하겠다는 태도로 일종의

‘심리적 퇴사’라 할 수 있다.¹⁴ 연구자는 이 말에 공감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와 같은 현실에 있는 여러 친구들의 탄식을 들었고, 연구자 또한 그러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는건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요즘 세대의 당당한 퇴사가 젊은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SNS 중에 instagram을 한다. 주로 용도는 내 삶의 기록을 남기는 일이다. 그 앱에 보면 reels라는 항목이 있는데 유튜브의 shorts와 같은 짧은 영상들을 업로드해 놓은 일종의 폴더이다. 거기에 보면 화면을 넘기면 넘기는대로 각종 분야의 영상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 자기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사를 했다는 영상이 자주 등장한다. “내가 퇴사를 결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긴 문장의 글이 함께 달려있다. 마치 그만 두는 것이 왜 나쁘냐, 포기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어필하면서 자신의 퇴사의 이유를 미화한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은 글을 보면 과연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 글엔 온통 자신의 퇴사의 당당함을 써놓았지만 글을 읽은 입장에서는 오직 자기 생각 밖에 없다. 그렇게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나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퇴사하며, 또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난다. 그만큼 MZ세대에게는 빠른 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다. MZ세대에게 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다. 김영기는 EVRIPC 중의 다섯 번째인 Private와 연장선에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private가 사생활을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서 MZ세대들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 중의 하나가 자기 개발을 위해 나를 놓아달라는

¹⁴ 이호건, 『조용한 퇴사』 (서울: 월요일의꿈 2023), 7.

것이다. 인터넷의 한 글을 보았는데 인간의 삶은 8·8·8 법칙을 지켜야 한다고 한다. 8시간 쉼, 8시간 일, 8시간 일상이다.¹⁵ 이 법칙은 어느 누구에나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융통성이 발휘되느냐인데, 8시간을 지킨다며 정확히 일을 끝내는 세대가 MZ세대라는 것이다. 8시간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건 상관 없이 오직 자신의 8시간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인 주장이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한다. 그리고는 본인의 행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8시간의 법칙을 지키는 본인은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몫에 받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나타나곤 한다.

이런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보니 한편으로는 그들의 당당함(?)에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그 박수는 진심으로 우리나라 박수가 아닌 뭔가 씩씩함을 담은 박수다. 자신들은 당당하다고 하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기성세대는 그들의 행동에 많은 걱정과 안타까움을 담고 있는 듯하다. (물론 그마저도 MZ세대들은 그런 걱정일랑 접어두라고 말하겠지만...)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세대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러한 MZ세대를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생각은 어떠한가? 일단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세대의 모습은 비판적인 잣대가 기본적으로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어른들의 존재란 하늘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른이 말하면 무조건 옳다!”, “어른이 말하면 팔로 메주를 쏠대도 그런 줄로 알아야 한다.” “너희가 나보다 어리면 내 말을 들어야 한다!” 는 일방적 통행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런

¹⁵ <https://blog.naver.com/happy1ife9418524/223236998980> [2024. 2. 9. 최종 접속]

분위기를 좋아하겠는가? 자기 생각과 뜻이 있어도 나이가 벼슬인 문화 속에서 어느 어린 사람이 이 대화와 분위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러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맞춰드린다!”는 것이지 정말 공경하고 존경해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MZ세대는 이러한 분위기의 틀을 깨는 세대이다. 할 말은 한다. 아니라고 생각되면 아니라고도 분명하게 말한다. 그래서 소위 기성세대들이 적잖게 당황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 해오던 것이 있고, 규칙이 있고, 보이지 않는 룰이 있는데 MZ세대는 이 틀을 깨려 한다.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기성세대에서 겪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니 기성세대는 답답할 뿐이다. 젊어서 아직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직 세상을 덜 살았다는 이야기가 기성세대의 입에 늘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한 가지 더 있다. MZ세대들이 오늘날 사회 특권층이나 기성세대를 소위 꼰대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 다수가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에 대한 비판은 외면한 채 나머지 것들에만 다양성을 말하기 때문이다. 그 여파로 MZ세대는 지금의 상대주의와 다양성의 논리를 ‘허구’라고 비판한다.¹⁶ 기성세대는 기본적으로 40대 이상에서 60대까지 인생의 수많은 경험과 실패를 맛보며 성장해온 세대이다. 실패가 많다는 것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안다는 것이며, 옳은 방법을 찾는 일에 그나마 보는 눈이 있고 체득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MZ는 ‘다양성’을 그렇게도 외친다. 당신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성세대가 바라볼 때 이 말이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하기 짝이 없게 느껴진다. 기성세대가 살아온

¹⁶ 이은경, 『흩어진 MZ세대와 접속하는 교회』 (서울: 쿤란출판사, 2023), 231.

인생의 방법과 농익은 삶의 지혜에 대해 MZ세대는 일단 거부부터 하고 본다. 반항인지, 간섭을 말라는건지 알 수 없다. 기성세대는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말하지만 MZ세대는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하냐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러니 기성세대는 MZ세대에 대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 가르쳐줘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내 말이 먹혀 들어가야 인생 선배로서 맛이 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으니 이제는 MZ세대는 그냥 답이 없는 세대라는 뉘앙스만 따라붙었을 뿐이다.

MZ세대가 주장하는 MZ세대

그러면 MZ세대 스스로가 주장하는 MZ세대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MZ세대는 자신들이 MZ세대인 것을 어필하고 살지 않는다. “내가 MZ세대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MZ세대라는 것을 어필도 하지 않으며 두각을 나타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내가 현실적으로 어른에 속하는 사람인지 젊은이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재밌는 예시가 되기도 한다.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하는 표현 중에 부드럽게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보게, 젊은이!” 이다. 왜 그럴까? 자신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직감적으로 나이가 더 많게 생각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젊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젊은이라 부를까?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일 뿐이다. 젊은이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젊은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그저 나는 나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다. MZ세대도 마찬가지이다. 자신들이 MZ세대의 반열에 있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MZ라며 말하고 다니지는 않는다. 나는 나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일 뿐이다. 그 ‘젊은이’ 라는 한 단어에 우리를 부르는 당신이 올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거기서 나타나는 세대차이는 간격을 좁히기가 여간 쉽지 않다.

MZ세대를 넘어 이제는 잘파세대(Zalpha Generation)

연구자가 이 논문을 준비할 때 MZ세대의 모습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 한다고 주변 지인들에게 말했을 때, 이미 MZ세대였던 지인은 “이제는 MZ세대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잘파세대다.” 라는 말을 했다. 연구자는 MZ세대가 수면 위로 드러난지 불과 몇 년 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세대의 흐름은 급속도로 바뀌어갔다.

그러면 잘파세대는 무엇인가? 잘파세대는 기본적인 어휘로 MZ세대의 범위인 Z세대에서 한단계 더 나아간 세대를 말한다. 영어의 Z 다음은 무엇인가? 다음 글자는 없다. 다시 A로 돌아간다. 그래서 Z세대와 A라고 표현하는 alpha가 결합되어 잘파(Zalpha)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래서 잘파는 1990년대 중반~2000년대 후반 출생한 Z세대와 2010년 이후 출생한 알파(alpha)세대를 합쳐 부르는 용어이다.¹⁷

이시한은 자신의 저서인 『이제는 잘파세대다』에서 잘파세대에 대한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서술하였다.

- 1) 디지털온리
- 2) 자중감
- 3) 현재적
- 4) 세계인

먼저 첫 번째로, 디지털온리이다. 잘파세대는 디지털 환경을 배경으로

¹⁷ 황지영, 『잘파가 온다』 (서울: 리더스북, 2023), 10.

태어난 세대들이다. 스마트폰과 함께 태어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2살 때 이미 스마트폰으로 스스로 필요한 앱을 다운 받았다는 도시적인 전설을 만들어낸 세대들이다.¹⁸ 연구자는 두 딸이 있는데 그들 역시도 15년생과 18년생 잘파세대의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어느정도 익숙해질 때쯤 손가락을 갖다대며 엄지와 검지를 벌리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니 지금 중고등학생과 20살 초반의 대학생들인 잘파세대가 핸드폰에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두 번째로, 자중감이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적극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아오며 자란 세대이다. 기성세대를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칭찬보다는 꾸중이 주었던 세대에서 이제는 우리 아이 기죽이면 가만 안 놔둔다는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살아왔다. 그러니 이 자중감은 어디 가서도 굽히지 않고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려서부터 사랑과 지원을 받으며 성장한 잘파세대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¹⁹

세 번째로, 현재적이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거나 짐쳐보는 행위는 이들에게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또 분위기와 문화는 바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파세대는 현재에 매우 충실하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미래로서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연장선장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리기보다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세대²⁰가 잘파세대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세계인이다. 디지털이 만들어낸 초연결 감각은 국격의

¹⁸ 이시한, 『이제는 잘파세대다』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2023), 10.

¹⁹ Ibid., 10.

²⁰ Ibid., 11

한계를 넘어 잘파세대를 하나의 연결로 묶어준다.²¹ 이 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예가 바로 스마트폰의 발전이다. 2024년 1월 17일, 삼성전자는 차기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스마트폰이 주력하는 내용은 AI(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다. 광고를 보면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각자 자신의 말로 통화를 하지만 핸드폰에는 각 나라의 언어가 번역이 되어 자신의 언어로 나타나는 것을 광고했다. 이제 잘파세대에서는 국경의 담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²¹ Ibid.

제 III 장

통설교의 이해

본 장에서는 통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설교가 MZ세대를 포함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봄으로서 통설교의 필요성을 강조해 보려고 한다.

통설교란?

통설교는 조병호가 연구한 통(通)성경공부에 기반을 두어 설교 형식으로 다시 창조해낸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통성경은 무엇인가? 통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수식어인 ‘통(通)’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조병호가 말하는 통은 한자어 通(통할 통)을 써서 성경의 처음과 끝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방법을 말한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간과 공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 의미가 통할 수 있게 보는 방법이 조병호가 주장하는 통성경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통(通)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완전히 꿰뚫어 본다는 뜻으로서 여러 가지 의미와 요소를 단번에 파악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조병호는 그의 저서 『성경통독과 통신학』에서 통성경은 성경 전체 66권을 파편화(fragmented books and multiple disconnected stories)하지 않고 하나의

이야기로 소리내어 읽는 것²²이라고 말한다. 또한 조병호는 자신의 저서인 『성경통독』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이란 기도와 묵상의 형태로 말씀을 읽는 신성한 성경읽기 방식을 지칭하는 한국어 단어이다. 이는 성경을 통한 통전적 기도의 방법으로 동서양이 만나고 직감(intuition)과 의도(intention)가 만나며, 구술(orality)과 도식(graphicacy)의 만남이자, 소리가 이야기를 만나는 것이다.²³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통으로 본다는 것인가? 조병호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 1)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 2)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 3) 제사장 나라·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첫 번째, 시간·공간·인간을 통(通)으로 보는 방법이다. 성경에는 대략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 그리고 5,000여 명의 인간이 들어있다. 조병호는 이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통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성경에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 시간과 공간과 인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서는 안되고 반드시 통(通)으로 함께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리고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은 성경 속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그 절기가 행해지는 장소가 있고, 그 시간과 그

²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7.

²³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13.

장소에는 인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속의 2,000여 년의 시간과 1,500여 곳의 공간과 5,000여 명의 인간을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인간 따로, 파편처럼 별개로 보지 않고 그 시간, 그 공간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지를 통(通)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성경을 통(通)으로 보는 것이 통성경이다.²⁴

두 번째, 개인·가정·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방법이다. 성경 속의 이야기는 먼저 주로 한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것이 확장되어 그의 가정에 대한 배경적 상황을 설명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의 분위기도 엿들어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병호는 그 예로 구약과 신약에서 한 가지씩의 예를 가져온다. 구약은 모세의 이야기다.

모세가 태어난 지 3개월째 되던 시점에 갈대 상자에 놓인 것은 모세 개인의 일이다. 동시에 그것은 모세의 아버지가 그 갈대 상자를 만들었고, 어머니가 그를 그 안에 태웠으며, 누나가 갈대 상자를 따라가면서 망을 봄으로써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가정 내에서 문제가 없고 마음이 하나였던 그 가정이 어린 모세를 죽을 확률 99.9%인 갈대 상자에 태워 나일 강에 떠내려 보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 가정이 히브리 민족이라 불릴 만큼 하나의 민족은 이루고 있었으나 나라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²⁵

모세의 이야기는 지극히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나라적으로 애굽 왕의 명령이 남자 아이는 죽이라는 당시 정책이 돌았던 시기이다. 그러나 모세의 가정은 모세 살리기 프로젝트를 실행할 만큼 긴박한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등장시킨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개인·가정·나라에 관한

²⁴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19.

²⁵ Ibid., 20.

이야기이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 개인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한 가정 이야기이다.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신 것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에게 고향에 가서 호적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즉 로마 제국과 유대 나라 이야기가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야기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²⁶

예수의 탄생 이야기도 예수라는 개인의 이야기일테지만 이 사건은 당시 나라의 두 살 이하의 아이는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에 황급히 피난하던 예수의 가정이 소개되고 있다. 역시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통으로 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 번째로, 제사장 나라·제국·하나님 나라를 통(通)으로 보는 방법이다. 조병호는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고 말했다. 이와 동일선상에서 제사장 나라의 법 1조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제사장 나라의 위치를 주장했다. 곧 그 뜻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다른 나라들처럼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 하나님과 맺은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한 시민의 일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5대 제국을 하나님의 세계경영에 들어 사용하신 것이다. <이사야>는 앗수르 제국을, <예레미야>는 바벨론 제국을, <에스라>는 페르시아 제국을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다.²⁷

²⁶ Ibid., 21.

²⁷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22.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명령과 법을 지키지 못한 탓에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들을 통하여 괴롭힘을 당한 역사가 많음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대마다 이스라엘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앗수르 제국을 보게 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보게 하시고, 에스라를 통하여 페르시아 제국을 보게 하신다. 이 관계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통성경이다.

그래서 통(通)으로 성경을 보면 조병호가 주장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분위기가 물씬 나타난다. 통설교는 바로 이러한 통성경공부를 기반으로 하여 설교형식으로 재창조해낸 것이 통설교이다.

통설교가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

이 소제목을 연구하면서 먼저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특징이라 하면 앞서 II 장에도 언급했듯이 여러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젊은이들의 삶의 패턴과 성격적인 부분에서 특징을 이해하려 한다.

먼저 첫 번째, 젊은이들은 간결한 것을 좋아한다. 길면 딱 질색이다. 지금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인 유튜브²⁸는 모든 연령층에서 삶의 일부가 되었다. 스마트폰이라는 신식 문물을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서도 제법 유튜브를 사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젊은이들 세대에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몇십 분의 긴 영상보다 인스타그램의 reels나 틱톡(동영상 플랫폼)의 30초 내외 영상을 더 선호하여 주 플랫폼을 이동하고 있다. 연구자의 주변에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²⁸ <https://namu.wiki/w/%EC%9C%A0%ED%8A%9C%EB%B8%8C>

보면 거의 대부분 인스타그램의 reels나 틱톡을 보고 있다. 여기에 위협을 느낀 유튜브 회사에서 대응하며 내놓은 것이 바로 유튜브 쇼츠(Youtube Short)이다. 유튜브 쇼츠는 2021년 3월, 베타 서비스가 미국에서 출시되었고, 곧 2021년 7월 13일에 전 세계적으로 출시되었다.²⁹ 이 사실에 근거할 때, 젊은이들은 긴 것을 진득하게 습득하기보다 핵심이 담긴 짧은 주제의 영상들을 수십 가지로 접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통설교는 바로 이와 같이 짧고 간결한 것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에게 탁월한 대안이 된다.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에 다짐하는 성경 일독 목표가 한 달만 지나도 흐지부지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창세기의 에덴동산을 넘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역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스펙타클한가. 그러나 레위기에 들어가는 순간 레위기는 내 위기가 된다. 지루하고 재미없는 글의 연속이니 여기서 성경통독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많다. 그러나 통설교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한다. 모세오경이라는 큰 트랙 안에서 레위기는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이며,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고, 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핵심노트³⁰라는 것을 단 한 문장에 정리한다. 얼마나 간결하고 쉬운가! 이렇게 정리하면 젊은이들이 한번에 알아차리고 레위기를 벽 없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통설교는 젊은이들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두 번째, 요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이 최대치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성인이 30분, 학생이 20분이라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다. 그래서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예배의 설교 시간도 가능한 20분을

²⁹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A%9C%EB%B8%8C_%EC%87%BC%EC%B8%A0

³⁰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63.

넘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 짧은 20분의 시간 안에 명확한 내용이 제시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행동을 하거나 정신이 멍하여져서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시간이 짧을수록 성경의 많은 내용을 알려주려 하니 사람의 마음은 급해지고 말은 빨라지며 주절주절하게 된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담아 설교해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 하다 보니 집중력은 흐트러지고 요점은 불투명해진다.

통설교는 요점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통설교가 기반으로 두는 통성경이 아주 요점이 분명하고 중점이 뚜렷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미 통성경에서 정확한 핵심과 대지를 제시하고 있기에 통설교는 그에 맞춰서 잘 요리하면 된다. 좋은 재료가 사용된 요리는 맛있을 수밖에 없다. 좋은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먹으면 몸도 건강해지고 기분도 좋아진다. 통설교도 마찬가지이다. 통성경이 이미 아주 좋은 재료로 세간에 등장했다.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새롭게 창조한 설교는 그 은혜의 농도와 복음의 진가가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

세 번째, 전문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는다. 2022년에 M.net이라는 음악방송 프로그램에서 진행한 쇼미더머니11(Show me the money 11)이라는 랩오디션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다. 거기서는 예선을 통과하기 위한 수많은 래퍼(Rapper)들이 심사위원의 심사를 기다리며 자신의 랩을 무반주로 선보인다. 그런데 한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이 아주 냉정하면서도 요즘 젊은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었다. 그 심사기준은 ‘3초 심사’이다. 3초 안에 자기의 마음을 흘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탈락이라고 소개했다. 실제로 그 방송을 보면 많은 참가자들이 준비한 랩 모두를 보이지 못하고 3초만에 탈락되는 일들이 허다하게 방송에 나갔다.³¹ 왜 3초만에 탈락시켰을까? 그 짧은 시간 안에 해당 래퍼의 실력과

³¹ 2022년 10월 21일에 방송된 Mnet 쇼미더머니11 방송을 보라.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래퍼들이 랩을 하기 전에 주입새로 넣는

‘ay’ 라는 단어만 들어봐도 더 들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이 된다고 한다. 이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전문적이지 않으면 벌써부터 코웃음을 친다. 해당 분야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발휘되는가 하는 것이 시작 초반부터 뇌리에 각인이 되지 않으면 3초 만에 들을 귀를 닫는다.

통설교는 이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요즘 젊은이들에게 아주 탁월한 대안이 된다. 통성경에 나오는 모세5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의 일곱 트랙은 설교로 풀어서 설명하면 분명히 파편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경을 통으로 보게 하여 핵심을 찌러주는 통설교로 만들 때 전문성이 겸비된 수준 있는 설교가 가능하다. 길면 듣기 싫어하고, 요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고, 전문성이 없으면 듣기 싫어하는 요즘 젊은 세대에 통성경을 기반으로 한 통설교는 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성경에 쉽고 재밌게 녹아들게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다.

통설교의 필요성

설교의 방법에는 무궁무진한 선택지가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주제설교와 강해설교라는 큰 줄기 안에 연역적(deduction) 설교, 귀납적(induction) 설교, 현대에 들어서 젊은 설교자들에게 각광 받는 방식인 원포인트(one point) 설교, 설교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는 스토리텔링(story telling) 설교가 있다.

먼저 연역적 설교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연역논리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다. 연역논리란 추론의 타당성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추론의 구조나 형식에 더 큰 관심을 둔다. 삼단 논법에서는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다. 소전제의 의미가

보편 원리인 대전제속에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³² 다음 표를 보자.

<표 1> 연역적 가설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전제	다윗은 사람이다
결론	다윗은 죽는다

연역법이란 일반적인 원리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으로, 원칙과 이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입시켜서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준비한 설교가 연역적 설교인데, 이 설교의 단점은 너무 뻥한 사실이라는 것에 있다. 일반적인 사실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사실을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대전제 자체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명제로 출발하기에 신박한 특별함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그렇기에 설교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든다.

다음으로 귀납적 설교다. 귀납적 설교를 말하기 전에 귀납논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귀납논리는 일반적인 원리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특정 사례나 관찰을 토대로 가설을 세우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추론하는 접근방식을 말한다. 다음의 표를 보라.

³²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4953>

<표 2> 귀납적 가설

관찰	다윗은 죽었다. 솔로몬은 죽었다.
패턴 인식	다윗과 솔로몬은 사람이다.
가설 형성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귀납적 설교에도 역시 단점이 존재한다. 그것은 틀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명제에서 출발하지만 대부분 그 당시 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윗과 솔로몬만을 바라보았을 때는 죽었겠지만 성경에는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인물인 에녹³³과 엘리야³⁴도 있다. 이처럼 관찰을 근거로 가설이 제시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틀릴 관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원포인트 설교이다. 원포인트 설교는 최근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매우 유행하고 있는 설교의 패턴이다. 박영재는 자신의 저서에서 원 포인트 설교는 본문에서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내어 주제에 일치하는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연속성과 역동성으로 절정을 향해 나가는 설교³⁵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설교에도 분명한 장점은 있다. 아주 쉽고 간결하게 메시지를 줄 수 있고, 주제가 좁고 심화된 메시지를 원하는 자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설교 방식이다. 그리고 지적 수준이나 연령고하에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설교이며, 특별히 강해설교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주제들 선택하지 않고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 논리를 발전시켜 청중들로 하여금

³³ 히브리서 11장 5절.

³⁴ 열왕기하 2장 11절.

³⁵ 박영재, 『원 포인트로 설교하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8), 22.

복잡한 생각이 들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 설교 방식에도 단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포괄성이 부족하다. 한 가지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동시에 담기에는 어렵다. 두 번째는 다양성의 부재다. 역시 한 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에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논리적 흐름의 약점이다. 한 가지 중심의 아이디어는 연역법과 귀납법 같은 논리적인 흐름을 무시한다. 오직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뒷받침할 힘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스토리텔링 설교다. 스토리텔링 설교의 최고 강점은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기 때문에 전연령이 아주 쉽게 그 흐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이야기가 있는 본문을 택해 그 이야기를 재현함으로써 사상이 아닌 경험을 회중에게 전달하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없는 본문일 경우에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이야기 형식(Narrative)으로 설교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이야기식 설교”를 구성할 수 있다.³⁶ 그러나 스토리텔링에도 단점이 있는데 그것은 설교자의 역량이 매우 강조된다는 점이다. 입담이 좋은 사람은 얼마든지 분위기를 잘 살려 성경을 전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입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스토리텔링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설교자의 강도 높은 스토리텔링 훈련이 필수임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에 연구자가 제안하는 바는 바로 통설교이다. 통설교는 통성경연구 위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위의 모든 설교 방식의 단점을 극복했다. 부분을 통하여 전체를 통으로 보기도 하고, 전체를 통하여 부분을 보기도 한다. 이 말은 연역적 방식과 귀납적 사고방식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one story)로 이어져 있음을 강조하여 원포인트의 성격도 가지고

³⁶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서울: 청목출판사, 2010), 26.

있으며,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연결성을 알려주기에 스토리텔링의 장점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 설교방식이 젊은이들에게 적용되면 그들은 성경을 품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무언가를 실천하게끔 할 때 무턱대고 시켰다가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확실히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 같지 않다. 기성세대는 그저 어른의 말이라면 일단 실행에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으나 젊은이 세대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일단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는 ‘왜’이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왜? 라는 의문에 해답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이 일에 대해 왜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으면 꿈쩍도 하지 않으며, 아무리 나쁜 내용이라도 왜라는 의문이 풀리면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실행한다.

이런 특징을 가진 젊은이들에게는 어떤 설교의 방식이 좋을까? 어떤 방법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관심 있게 반응하고 집중력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설교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통설교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깨닫게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매우 탁월함을 준다. 부분과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곧 전체를 보게 하고, 하나 둘 그 부분이 이어질 때 비로소 거기에 큰 그림이 있었음을 보게 한다.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보는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자신이 있음을 믿는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임을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그동안 젊은이들 안에서 “성경은 어렵다. 성경은 재미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가 힘들다.” 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통성경 방식을 사용한 설교를 들려준다면 이들은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 기반을 통성경교육으로 잡아서 통설교를 해준다면 다음 세대는 희망이 있다.

만나세대와 미스바 세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율법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에스라가 성경을 그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이다. 율법을 들었을 때 만나세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탄식하는 은혜가 있었고, 율법을 들었을 때 미스바 세대 역시도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회개하며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은 모세 한 사람으로부터, 또한 에스라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모세와 에스라는 성경을 부분만 준 것이 아니다. 모세는 율법을 통으로 들려주었고, 에스라 역시도 율법을 새벽에서 정오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들려주었다. 성경을 통으로 알려준 것이다. 그러므로 통설교는 한번의 설교로 끝이 나서는 안되고 계속해서 통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알려주는 작업이다. 그들은 반드시 성경세대가 될 것이다.

조병호는 이 성경을 5세부터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세가 되어 부모의 곁을 떠나기까지 이 성경을 듣고, 보고, 이해하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이 바로 시작점이다. 그들은 반드시 후대에 이 영향으로 인하여 또 다음 세대를 성경으로 가르칠 것이다.

제 IV 장

통설교의 실천

제 II 장에서는 MZ세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그들을 이해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제 III 장에서는 통설교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젊은이들, 특히 MZ세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통설교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현재 섬기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진교회 청소년부 설교에 통설교를 적용한 사례와 그에 대한 회중의 평가 및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통설교가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영향력과 신앙발달에 도움을 주었는지 직접 실행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주문진감리교회와 청소년부의 상황

연구자가 현재 부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진교회(이하 주문진교회)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항구로 43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주문진교회는 올해로 123주년을 맞은 교회이다. 주문진교회는 미국남감리회 의료선교사인 로버트 하디 선교사(Robert A. Hardie)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출생했지만 자기 삶의 반 이상을 미국남감리회 해외 선교부 선교사로 활동³⁷한 선교사이다. 『주문진교회 112년 역사』 자료집에 의하면 하디

³⁷ 이덕주,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 (서울: 밀알북스, 2021), 26.

선교사가 영진노구에 정착하고 해안선을 따라 주문진교회가 시작한 장성리 마을(주문진 나루 부분)에 이르러 전도함으로 주문진교회의 신앙공동체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³⁸ 그의 열정적인 복음 전파 활동 덕분에 예수의 복음이 바다를 건너와 이 주문진 땅에 들어왔고 주문진교회는 지금까지도 주문진읍의 장자 교회로서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주문진교회 청소년부는 현재 재적이 29명이고 출석인원이 15~20명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별히 이번 올해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청소년부라는 주제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가 주문진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등록되어 있으며, 3명 정도는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전도를 통하여 등록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

<표 3>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재적상황

번호	학년	이름	성별
1	중1	최○윤	여
2	중1	이○빈	여
3	중1	김○완	남
4	중1	대○우	남
5	중2	남○슬	여
6	중2	조○주	남
7	중2	김○성	남

³⁸ 박삼열, 『주문진교회 112년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진교회, 2013), 64.

8	중2	조○연	여
9	중2	박○경	여
10	중2	장○빈	남
11	중3	김○영	여
12	중3	김○영	남
13	중3	오○찬	남
14	중3	심○우	남
15	중3	이○빈	남
16	고1	박○을	남
17	고1	이○욱	남
18	고1	김○담	여
19	고1	김○정	여
20	고1	서○연	여
21	고1	서○영	여
22	고2	최○성	남
23	고2	하○우	남
24	고3	이○총	여
25	고3	하○진	여
26	고3	이○윤	남
27	고3	김○준	남

28	고3	김○준	남
29	고3	배○립	남

실행절차

주문진교회 청소년부 예배시간에 통설교를 적용시키면서 얼마나 이들에게 성경이 재밌게 전달될 수 있을지, 이들의 기억 속에 확실하게 남을 수 있을지, 성경을 윈스토리로 한 눈에 담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준비했다. 선행연구에서도 밝혔지만, O.T를 시작할 때에 우리가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을지를 설교하며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통성경 공부를 왜 시작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확실히 선생님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평소에 집중하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연구자가 진행했던 O.T와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제시한 52과의 설교는 <표 4>와 같다. 2주간의 O.T의 내용은 『CBS바이블칼리지』 통성경학교 온라인 강의에서 도움을 받았다.

<표 4> O.T + 『통성경 길라잡이』 52과 내용

주차		
O.T 1		왜 어렸을 때부터인가?
O.T 2		통성경 7트랙
	7트랙	52과 내용

1	모세오경	원역사
2		족장사
3		입애굽과 민족의
4		출애굽과 제국
5		세계 선교의 꿈 - 제사장 나라
6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7		만나 세대
8		만나 학교 졸업
9		약속의 땅 입성
10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11		교육의 성공 사례
12	왕정 500년	미스바 세대
13		왕정의 시작
14		세 번의 기름부음 - 제사장 나라 충성도
15		하나님의 종 다윗
16		솔로몬과 시가서

17		하늘 보석 읍
18		남북 분열 왕조
19		요나의 기적
20		북이스라엘 멸망
21		메시아와 베들레헴의 목동
22		남유다 멸망
23		70년의 징계
24		역대기 - 재건세대 선물
25	페르시아 7권	포로민 설득 - 유대인의 시작
26		제국 변동의 밑그림
27		성전 재건 - 귀환과 투자
28		에스더의 파티
29		에스라의 권한
30		성벽 재건
31		고백과 침묵

32	중간사 400년	헬라 제국과 중간사 - 모세오경의 세계화
33		헬라 제국과 중간사 - 마카비 혁명
34		하스몬 왕조와 중간사 - 왕 겸 대제사장 통치
35		로마 제국과 중간사 - 헤롯 왕조
36	4복음서	예수님의 탄생
37		예수님의 한 영혼 사랑
38		사랑 때문에 피곤하신 예수님
39		사마리아인과 세리의 친구 예수님
40		마지막 일주일 - 21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과 빌라도 재판
41		십자가 승리 - 하나님 나라
42	사도행전 30년	열리는 제자 시대 - 2, 3,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43		바울의 1차 전도여행 - 예루살렘 공회
44		바울의 2차 전도여행
45		바울의 3차 전도여행
46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 5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47		최수 바울 로마 도착
48		교회론과 기독교론
49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 로마 대화재 사건
50		복음 2세대 위한 편지
51	공동서신 9권	요한의 사랑 선언 편지
52		새 하늘과 새 땅의 노래

『통성경 길라잡이』 52과를 기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통설교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절기력이나 행사 상황이 무시될 수는 없었다. 교회에 각종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여름 겨울 수련회 등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한 주를 넘어갈 수밖에 없는 날도 있었다. 그러나 그 사이를 건너뛰지는 않고 한 번에 묶어서 설교하기도 했다.

다음은 연구자가 실제 통설교를 진행했던 내용 세 가지 통설교를 소개한다. 다른 세 개는 부록에 추가적으로 넣었음을 밝힌다.

<통설교 원고1>

제목: 사무엘서 어떻게 통으로 볼 것인가?

일자: 2023년 3월 25일

본문: 사무엘상 1장 1-18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무엘서를 가지고 함께 통으로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연 사무엘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무엘서를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론을 몇 가지만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서에 관해서입니다. 제가 사무엘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나뉘지죠. 처음 이 책이 발견될 때에는 한 권의 책으로 발견된 사해사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기록하는 문자의 개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하나의 두루마리 안에 다 넣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동물의 껍데기를 이용한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에 글을 새겼었는데 동물이 커봐야 얼마나 커서 그 가죽을 벗겨 그 안에 내용을 다 집어넣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글을 작은 두루마리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후대에 이것을 상, 하로 나누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로 분류를 하게 되었고 그러한 구분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누가 사무엘서를 썼는가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사무엘서니까 당연히 사무엘이 쓰지 않았겠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그렇다면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사울과 다윗시대 때도 사무엘이 썼느냐? 사무엘은 이미 죽고 난 뒤인데... 그럼 사무엘상에도 12장까지밖에 등장하지 않고, 사무엘하에는 아예 언급이 없는데 이것도 사무엘이 쓴거냐? 라는 주장이 더 힘을 얻으면서 사무엘서의 저자는 미상(알 수 없음)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무엘서의 중요한 한가지 키워드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사무엘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치리하고 인도하실 계획이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사를 세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사무엘상 8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기 아들들, 요엘, 아비아를 사사로 삼았는데 이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하는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다 굳건한데 우리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사실 그 내면을 보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서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 말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정 국가가 되면 계급이 생기기 때문에 누군가는 정말 고된 노역을 해야할 것이고, 모두가 세금을 내야하고, 원치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을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말을 안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내 왕을 세우라 하심으로 이제는 사사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초대 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울 왕인 것이죠. 그것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사 시대 말기와 그 맥락을 이어갑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와 연결지어 보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많이 읽어보시고 접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사기를 대변하는 주요 핵심 구절이 무엇이나 하면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맥락이지 않습니까? 모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다가 그 지도권이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를 대체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부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피를 잡아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하는 일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으니까 내가 그렇다 하면 그게 맞는거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역사의 내리막길을 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울음을 통해 지도자를 준비시키시죠.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 어머니 한나의 울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의 육체적 결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어두웠던 사사 시대 말기에 촛불을 켜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고 사무엘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 시대 말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역사의 타락의 길을 걷던 날에, 성경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소빔에 살고 있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명은 한나요, 다른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성경은 두 여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데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100년 전만 해도 아이를 잘 낳아주는 여성이 대접을 잘 받았고(특히 남아) 자식을 못 낳는 여성은 홀대를 받았듯이 한나가 살던 당시의 나라 분위기는 여성이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고 여성으로서의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에게 브닌나가 화를 돋우는데 브닌나가 한나를 향하여 자식을 못 낳는 여자라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거기서 울며불며 밥도 안먹고 지내는 거예요.

하루는 한나가 이런 일로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려워져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한나의 서원기도였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마치 포도주에 취해있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포도주를 끊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한나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상황과약을 하고 한나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는 위로를 얻어 다시는 근심 빛이 없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친구들과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만나는 여러 풍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공부라는 큰 풍랑이 있잖아요. 그 인생의 풍랑은 다른 사람들이 능히 알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아픔입니다. 어느 누구라고 아픔을 겪고 싶어서 겪는 사람이 없으며,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인생의 아픔 중 하나는 아이가 안 가져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싫어서 아이를 안 갖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무 원하는데 아이가 가져지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나에게 굶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비난이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로 지내는 사람에게서 질투와 시기를 받아 한나의 마음을 더 굶어놓는 거예요. 이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하시겠습니까? 브닌나의 떡살을 잡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따질 수도 있고,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서 니가 엘가나의 아내로 남든 내가 엘가나의 아내로 남든 오늘 결판낸다 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죽을 것만 같은데 이걸 가지고 분을 참지 못해서 이 사람 붙들고 화내고 떡살 잡고 소리 지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전에서 주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저 주님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 못할

아픔과 고통이 억누를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확 질러버려야 속이 풀리기 때문에 질러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치고 박고 싸우는게 해결의 방법이라 여겨서 정말 치고 박고 싸우진 않으셨는지요. 아마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에게 다가오다가 그저 말없이 뒤로 돌아서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풍파가 닥쳐올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한나가 살고 있는 이때, 나라가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맞다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나가 화가 나서 뒤집어 었었다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역사는 전혀 다르게 쓰여졌겠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의 결과는 본인의 고질적 인생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의 공격을 이겨내는 기도가 되었고, 또한 영적 내리막길을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주게 만드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아픔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내는 열쇠가 됩니다. 기도만이 나의 문제와 더 나아가 민족의 문제를 풀어내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문진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물 쏟는 통곡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기도한 후에는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실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근심 빛을 썩 지우고 평화한 마음으로, 얼굴에 주의 빛이 가득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에 근심 빛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여셨던 그 창조의 빛이 여러분들 얼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설교 원고2>

제목: 갈라디아교회에 보낸 편지

일자: 2023년 11월 4일

본문: 갈라디아서 1장 6-10절

갈라디아서의 개론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짚어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즉, 발신자가 바울이고 수신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입니다. 왜 보냈다고 했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흘렸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른 복음은 누가 전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전한 겁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2) 율법(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절기 준수와 음식규정)을 지켜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율법주의 유대인, 유대주의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에 홀려 넘어가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편지, 교회 내의 큰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는 목회자의 다급하고도 안타까운 투쟁, 매우 하이텐션에다가 흥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서신, 그것이 갈라디아서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서 27권 중에 절반이 되는 13권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일컬어 바울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13권의 책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나 하면 항상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소개를 간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의 종 됨과 사도 됨을 다른 서신보다 매우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라고 하면서 아주 엄중하고도 무겁고 강력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운을 떼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면서 앞으로 본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전제로 깔고 가려고 이러한 무거운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통화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띠리리링) ○○야! 이민호 목사님이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지금 뭐해~” 라고 운을 띄며 통화를 시작한 것과, “(띠리리링) 안녕하세요, ○○청년! 저는 삼천교회 청년부 담당 이민호 목사입니다. 긴히 전달해야 할 얘기가 있어 전화 연결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앞의 내용은 아무래도 뭔가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시도한 것 같은데 뒤의 내용은 뭔가 격이 있는 걸로 봐서 가볍게 받아질 통화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과 비슷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 이라는 말과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이라는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지금 바울은 상황이 정말 다급하고 답답한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일어난 갈라디아인들의 다른 복음을 따르고자 하는 배교 상황을 한시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앞으로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전제로 깔고 가는 내용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행동한 복음의 전달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데 그 핵심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뭘로?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를 대신하여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건지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 하나 선의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특징 중 하나는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첫 사람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는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 자녀들의 칭호는 죄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낳은 자녀니까요. 그렇게 또 죄인이 장성해서 낳은 후손들은 죄인이 되고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죄의 구렁이에 빠짐으로 영원히 마귀의 권세 아래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했지만 끝끝내는 돌아오지 않는 저 영혼들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것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들이 스스로는 자기에게 올 수 없기에 결국은 걱정된 것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보내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준 바 되신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이, 선의 결정체이신 그분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나의 노력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니...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노력해서 될 거 같았으면 의인이 안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늘 죄는 우리 발 앞에 엮드려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걸려 넘어졌던 것이고 죄에게 잡아먹혔던 것이죠.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이렇게 행하셨던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어서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내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고차원적인 수준의 보물 따먹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이런 오류에 넘어간 것입니다. 마치 고행을 해야만 알아주실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키며, 음식을 구분해야 먹어야 한다는 그런 고차원의 기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장벽을 그렇게 높게 만들어놓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의 영혼을 건지셨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 하나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은혜를 떠나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를 것을 주장하는 것들을 향하여 “다른 복음” 이라고 그랬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중요하였는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을 완전히 거부하였는가?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할례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에 배워온 것이 유대인으로서의 처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규정된 할례와 모세 때에 규정된 율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빠삭하고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해온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본태생이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 철학자들이 엄청나게 배출된 도시에서 자랐으며),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했는데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의 조상님이라고 불릴 정도의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고한 내용에는 그는 산헤드린의 의장까지 지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율법교사였고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계율을 많이 제정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어떤 내용도 보류시킬 수 있고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권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율법을 통하여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할례와 율법을 지켜가려 했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세력이 흥왕할 때에 그것을 막으려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히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그동안 믿고 지켜왔던 기준들이 싸그리 무너져버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과 할례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의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신은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나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죄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그는 율법과 할례가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할례와 율법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시작이요, 할례와 율법은 따라오는 것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바울이 볼 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의 유대주의자 교훈을 따르는 행동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 현실에 원망을 품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불만하며 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을 수 있었고 저것도 먹을 수 있었다! 그런데 너는 지금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고 배고파 죽게 한다.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련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한 그들의 모습, 이것이 갈라디아인들의 다른 복음으로 편향되려고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하여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놓았는데 다시 악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들의 모습, 바로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구원받은 자리에서 옛적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배교를 떠올릴만큼 저주를 받을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나 꿈 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피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왜 다른 것을 좇아가십니까? 왜 다른 것에 집착하십니까? 왜 다른 것에 인생을 거십니까? 신천지가, 통일교가, 제칠일안식교가, JMS가,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구원함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영혼을 맡길 만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말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다 거짓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혹시나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가 도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환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전혀 상관없는 처방을 내린다면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더 키울 수도 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 어떤 한 글을 봤는데 어떤 어린 아이가 혼수상태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 환자를 파악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약을 투여했지만 그 어린 환자는 약 20년 가까이 그냥 그렇게 혼수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더 이상 이 시간을 견딜 수 없었던 환자의 부모가 약을 중단하고 포기를 했는데 그 약을 끊는 순간 애가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아이는 정상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영적인 분야에서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설교하고, 공동체의 영적 상황을 그때그때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시정하여 공동체의 생명력을 유지 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고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러한 일들을 잘 해내야 하는데 잘 못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다시금 바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보려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처방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의 근본 문제는 유대주의자들이 가져온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짓 복음을 가져온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을 가져왔어도 진짜 복음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복음에 흔들리면 안됩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도 안됩니다. 우리는 오직 진짜 복음, 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복음,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함께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다른건 몰라도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뿐이다! 내가 사람들의 무언가를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을 구하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설교 원고3>

제목: 원역사에 대해서

일자: 2023년 1월 21일

본문: 창세기 1-11장

오늘은 통성경의 7개의 트랙 중 가장 첫 번째인 모세오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그 첫 번째인 원역사,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살핍니다. 우리가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볼 때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고대, 중세, 근대, 현대라는 기준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원역사는 뭐냐? 고대 그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5살짜리 특히 남자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그들은 원역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에게? 어떻게 개네들이 원역사를 알아요?” 아주 잘 알아요. 공룡 얘기하면 눈이 뒤집어 지는거죠. 티라노사우르스! 원역사 얘기거든요. 공룡 이름 나열하기 시작하는 순간 원역사를 논하는 겁니다. 5살 애들도 원역사를 논하는데 우리 청소년부쯤 되면 원역사 얘기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성경에도 원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크게 여섯 가지로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역사, 첫 번째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인류 최초 살인사건, 네 번째 노아의 홍수-하나님의 눈물, 다섯 번째 족보-약속의 성취, 여섯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1) 천지창조(1-2장)

천지창조 이야기는 교회를 다녀본 친구들이라면 아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특별히 단기선교 다녀온 친구들이라면 더 잘 기억할지도 모르겠네요. 첫째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날에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문구는 없음), 셋째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에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는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2)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3장)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아담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보여서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하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둘은 빨개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눈을 가리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둘이 에덴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걸 아담에게 주어 아담도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벌거벗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그때 당시는 죄 지음!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더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죽이지는 않으시고 벌을 주고 에덴동산에서 그냥 내보내십니다. 그 벌은 뭐냐? 남자는 종일토록 수고해야만 먹을 양식이 있게 하셨구요,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고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주셨고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게끔 규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더 큰 벌! 너희는 반드시 삶이 끝나게 된다. 이게 인간을 향한 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내보내시는데 이렇게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시는게 아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내보내세요. 다닐 때 벌거벗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애잔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 놓으시는... 하나님이 벌을 주셨지만 그래도 당장에 완전한 죽음으로까지 내몰지는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담은 장면이 3장의 내용입니다.

3) 가인과 아벨(4-5장)

아담과 하와가 땅을 유리하면서 다니다가 그들도 자녀를 낳게 됩니다. 두 아들을 낳아요. 이름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브라운아이드걸스의 가인이 아닙니다.)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최초의 인류 살인사건이 나게 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차별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스토리상으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의 의로 예배를 드린 사람이고, 아벨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그게 기분이 나빠

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이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막 뭐라 하십니다. “니 동생 어딴냐? 니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너는 평생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난 상태에서 낳은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땅에 인류가 점점 퍼져나가게 됩니다.

4) 노아 홍수(6-9장)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점점 인류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들이 성격과 배경이 전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을 돌보지 않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은혜를 입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이 욱합니다. 너 제정신이냐고. 무슨 맑은 하늘에 비가 온다 그러냐 하면서 정신나간 짓 하는 노아를 욱했지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120년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동물들을 태우고 자기 가족들을 태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땅을 홍수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물이 드러나면서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땅에 발을 닿게 되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무지개를 보여시더라 하는 것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입니다.

5) 족보(10-11장)

그러면서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후손을 이어갑니다. 그게 10장과 11장에 걸쳐서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에 보니까 야벳의 아들은... 하면서 나와 있고, 6절에 보니까 함의 아들은... 하면서 나와 있고 21절에 보니까 셈은... 하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11장까지 나와 있는데...

6) 바벨탑 사건(11장 1-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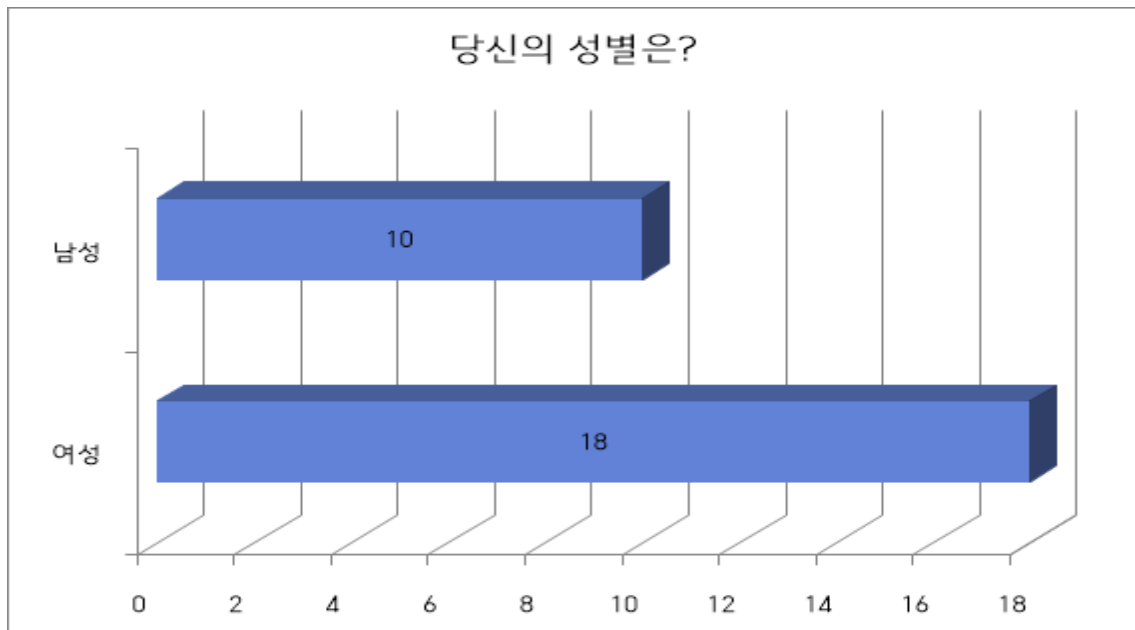
이 바벨탑 사건의 핵심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되겠다! 내가 대장이 되겠다! 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간의 언어가 하나고 족속도 하나였는데 이걸 흠어버리십니다. 사람들의 언어를 다 다르게 바꾸어버리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자기의 살길로 흠어진 것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의 교만함을 벌하셔서 사람들이 흠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흠어진 민족 중에서도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 바로 그 이야기가 12장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장까지의 내용만 살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원역사에서는 여섯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두 번째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용서, 세 번째 가인과 아벨-인류 최초 살인사건, 네 번째 노아의 홍수-하나님의 눈물, 다섯 번째 족보-약속의 성취, 여섯 번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통으로 보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설교에 대한 반응 조사(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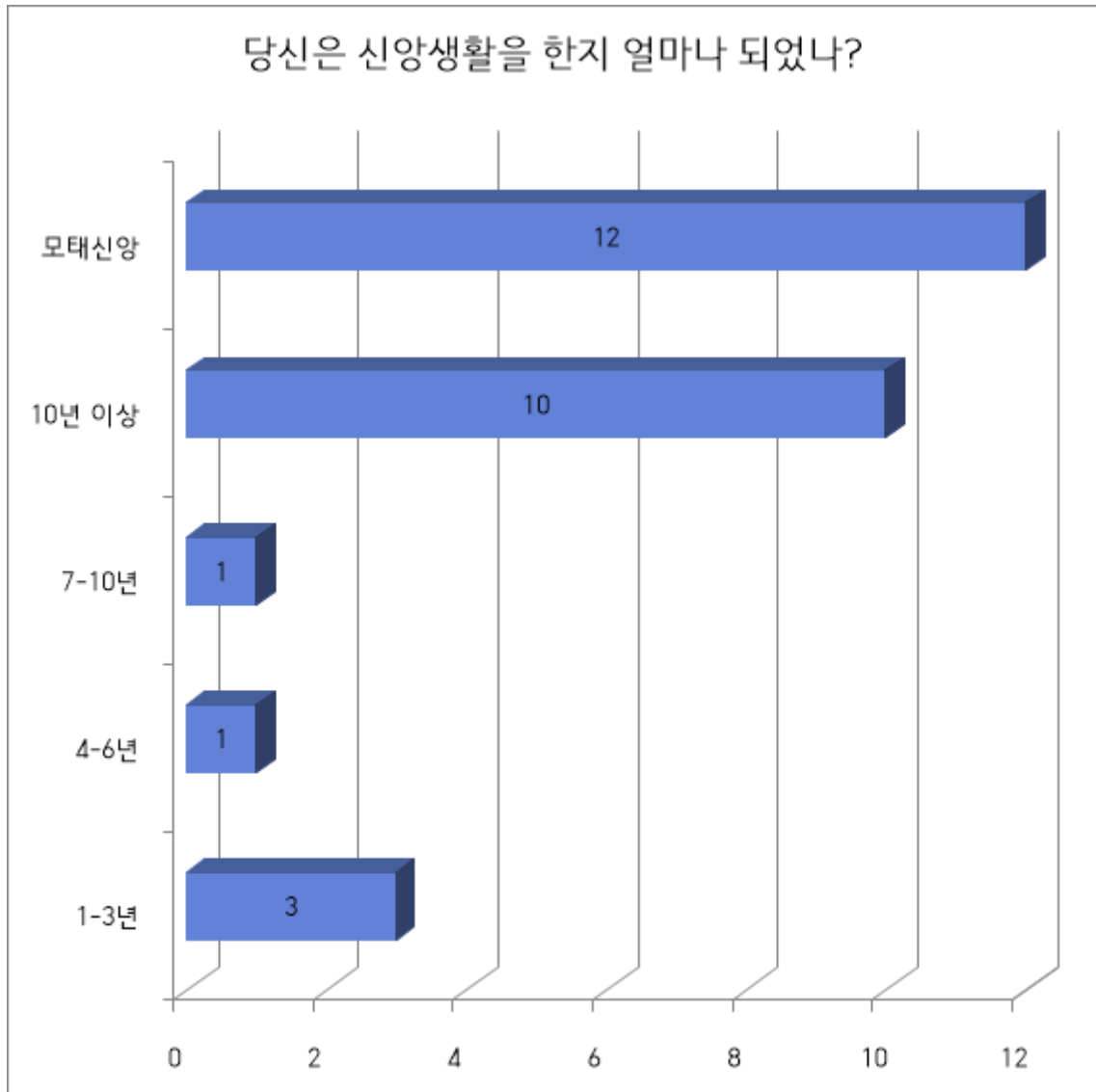
본 연구는 조병호의 통성경강의를 기반으로 한 설교이다.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시선을 제시하여 MZ세대에 속하는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지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하면서 이들의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위하여 『통성경 길라잡이』에 있는 52과의 내용을 매주 토요일 5시에 드러지는 청소년부 예배에서 실시하였고, 이것이 어떻게 각자 개인에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을 조사하였다. 설문 조사의 방법은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재적 30명 중에 20명이 본 설문에 참여하였다. 이하는 그 수치를 데이터화 한 것이다.

<표 5> 당신의 성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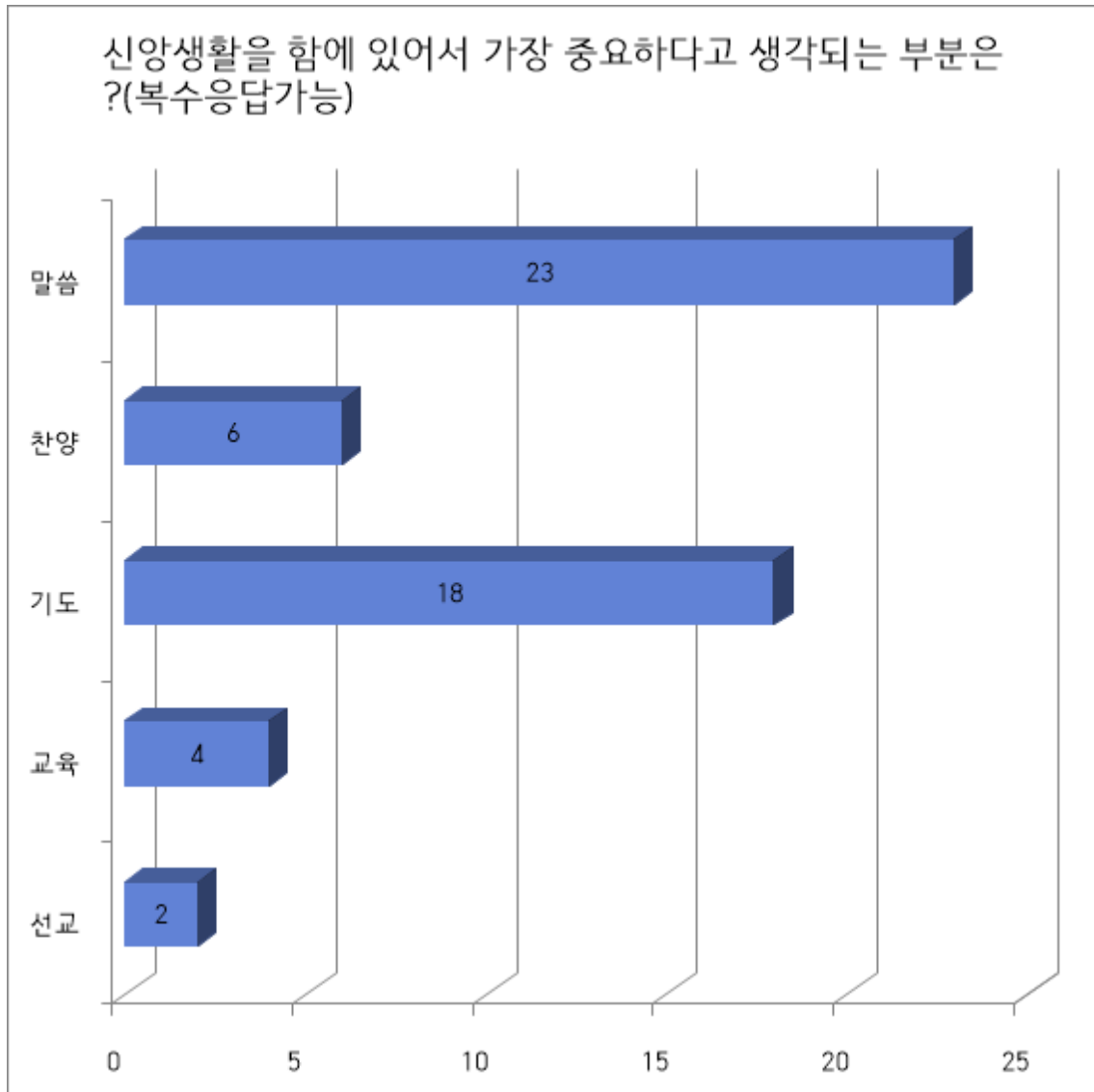
응답자 28명 중에 남성이 10명으로 35.7%, 여성이 18명으로 64.3%였다. 이들 중에는 대부분이 기존에 청소년부 예배를 잘 나오는 학생이지만 통설교를 듣지 못했던 것 청소년부로 올라온 학생 4명이 포함되어 있다.

<표 6> 당신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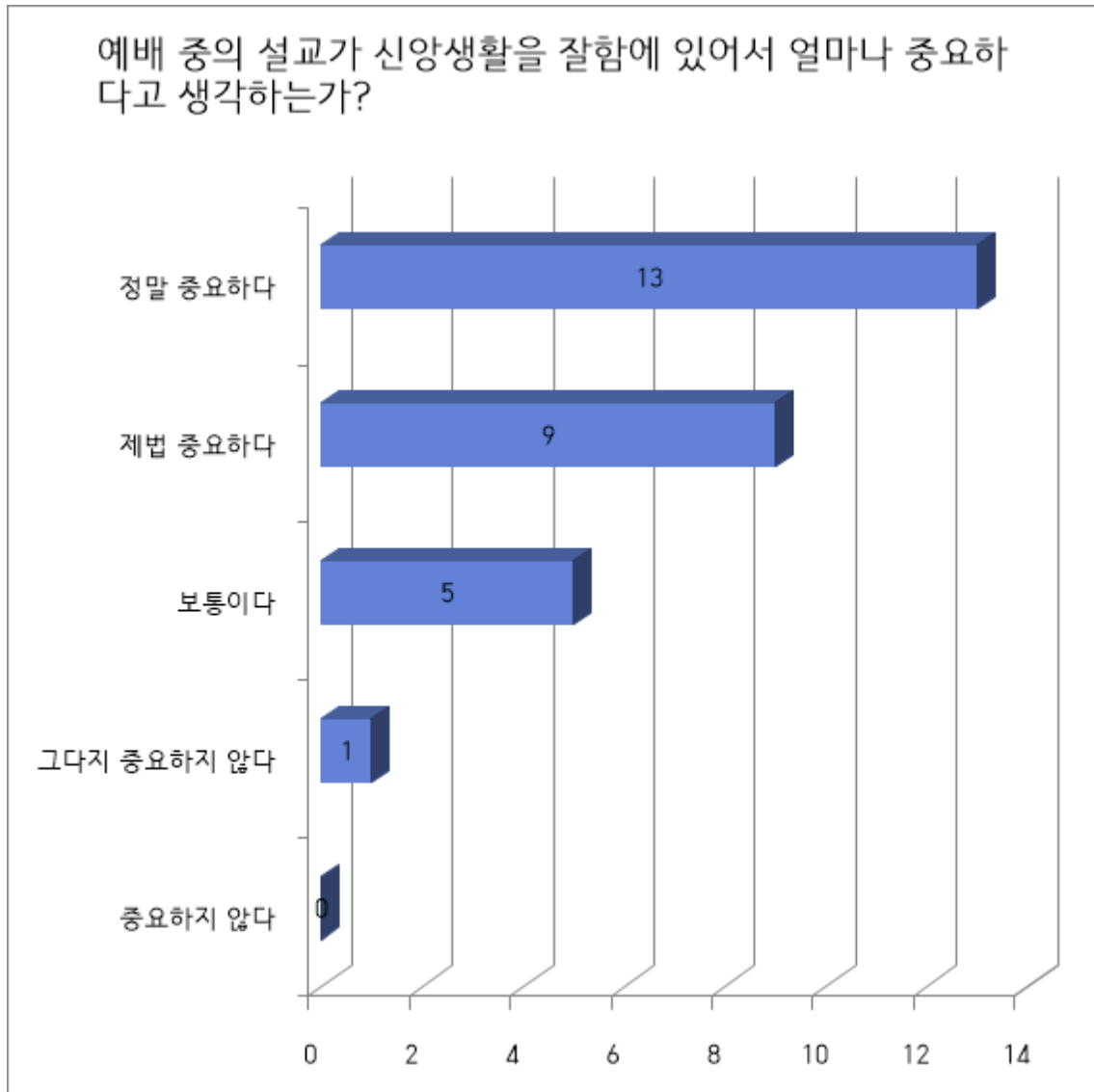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었냐고 조사한 결과, 42.8%가 모태 신앙, 35.7%가 10년이상 신앙생활을 했다고 대답했다. 7년에서 10년 사이의 신앙생활한 자가 1명, 4년에서 6년 신앙생활한 자가 1명, 1년에서 3년 사이의 신앙생활한 사람이 3명이 있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약 80%의 응답자는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꽤 오래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복수응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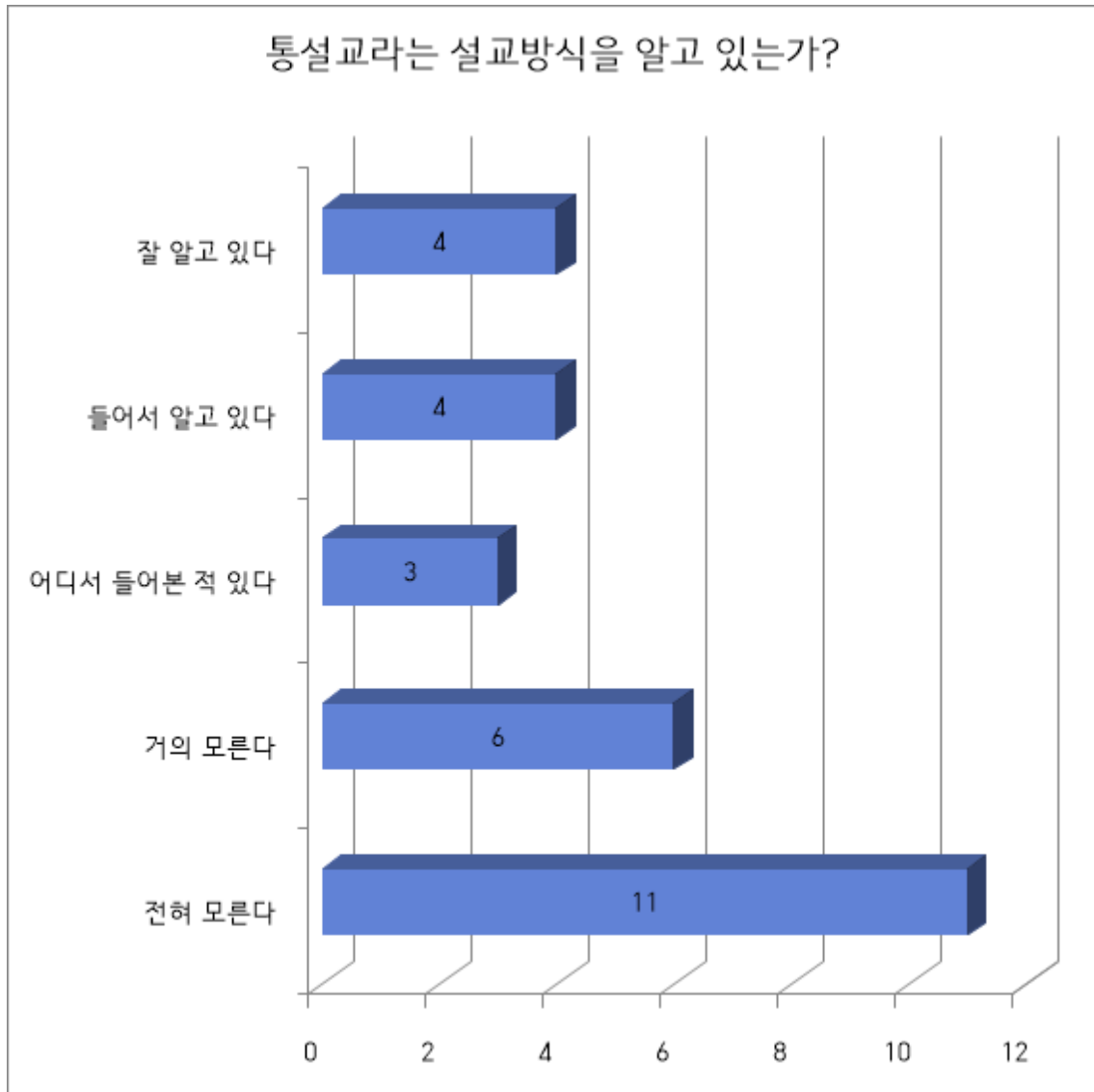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꼭 한 가지만 골라야 되냐는 물음이 있어서 복수 응답 가능하다고 하였다. 말씀이 43.4%, 찬양이 11.3%, 기도가 33.9%, 교육이 7.5%, 선교가 3.7%로 응답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결과,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8> 예배 중의 설교가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예배 중의 설교가 신앙생활을 잘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46.4%가 정말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며, 32.1%가 제법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이가 17.8%,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가 3.5%,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가 3.5%를 차지했다. 즉, 78.5%의 응답자가 설교가 주는 비중이 매우 큼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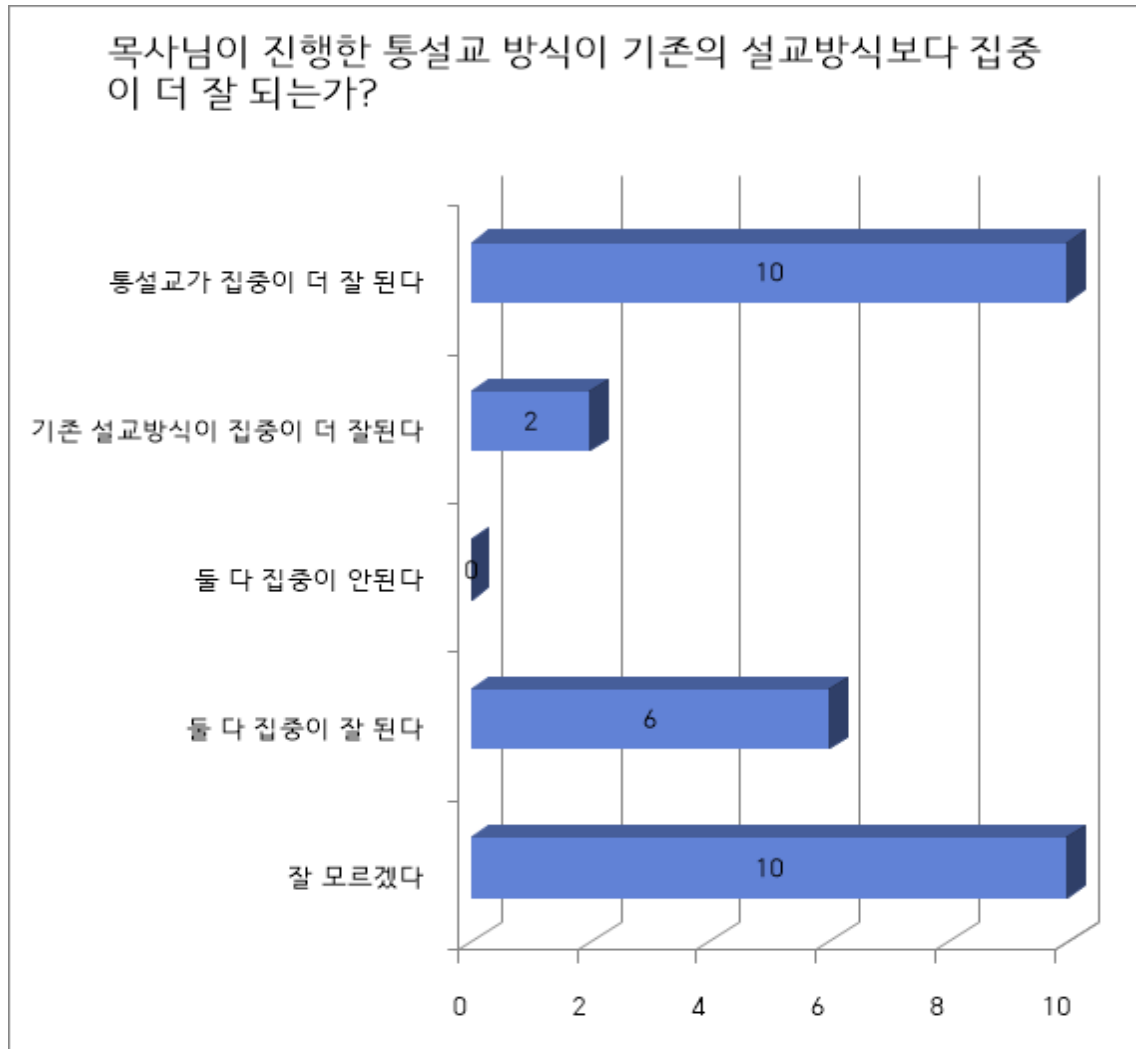
<표 9> 통설교라는 설교방식을 알고 있는가?



연구자가 통설교라는 것을 하기 전에 통설교라는 방식을 알고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14.2%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역시 동일한 수치로 14.2%가 들어서 알고 있다고 대답했고, 10.7%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 인원은 평소에 연구자와 가까이 했던 학생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60.7%의 인원은 통설교의 방식에 대해서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른다고 응답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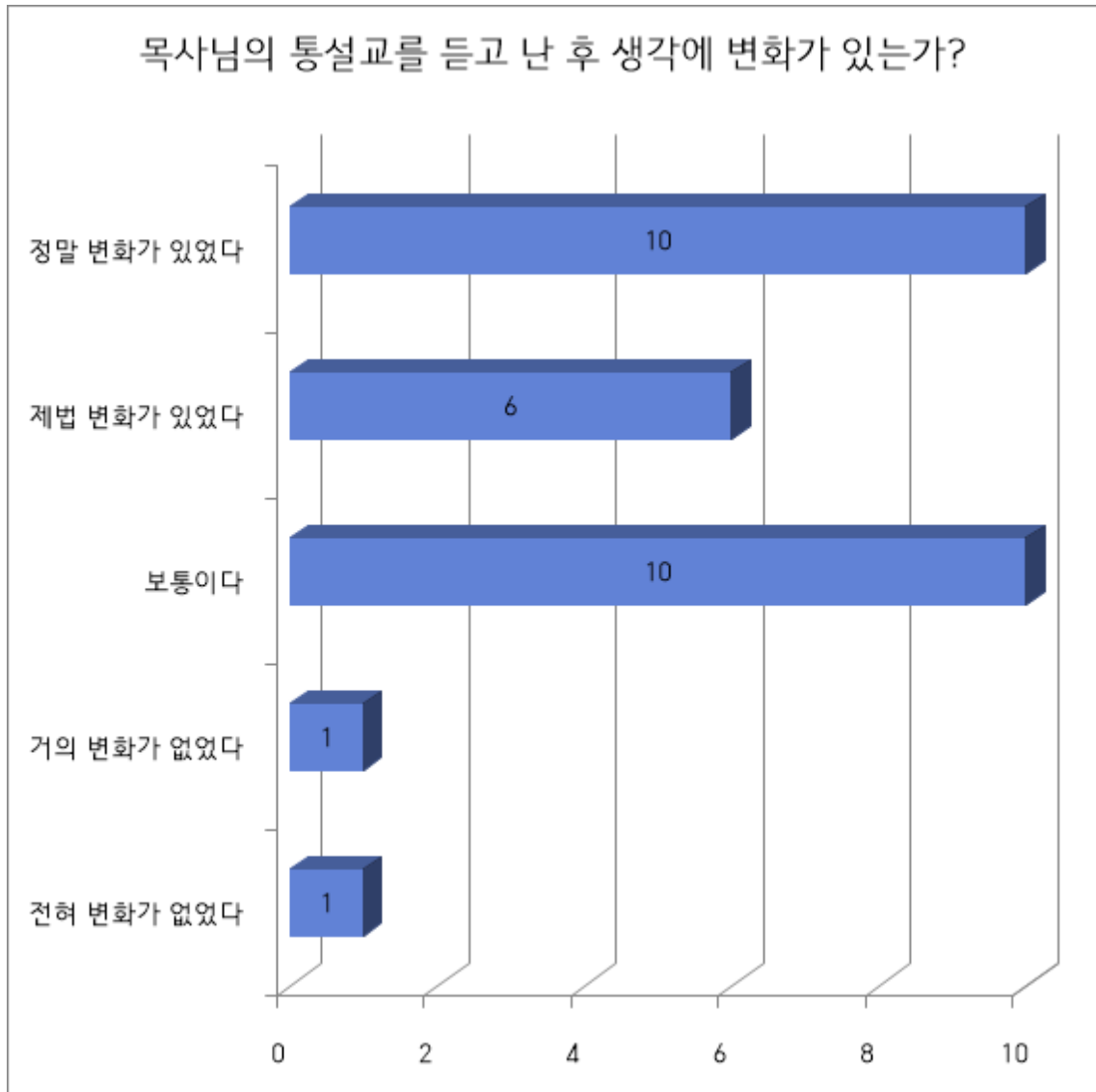
<표 10> 목사님이 진행한 통설교 방식이 기존의 설교방식보다 집중이 더 잘 되는가?



목사님이 진행한 통설교 방식이 기존의 설교방식보다 집중이 더 잘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35.7%가 통설교가 더 집중이 잘 된다고 응답했고, 같은 비율로 35.7%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통설교의 방식은 좋으나 전달자의 전달 능력이 조금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존 설교도 집중이 잘 된다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이

집중해서 설교를 들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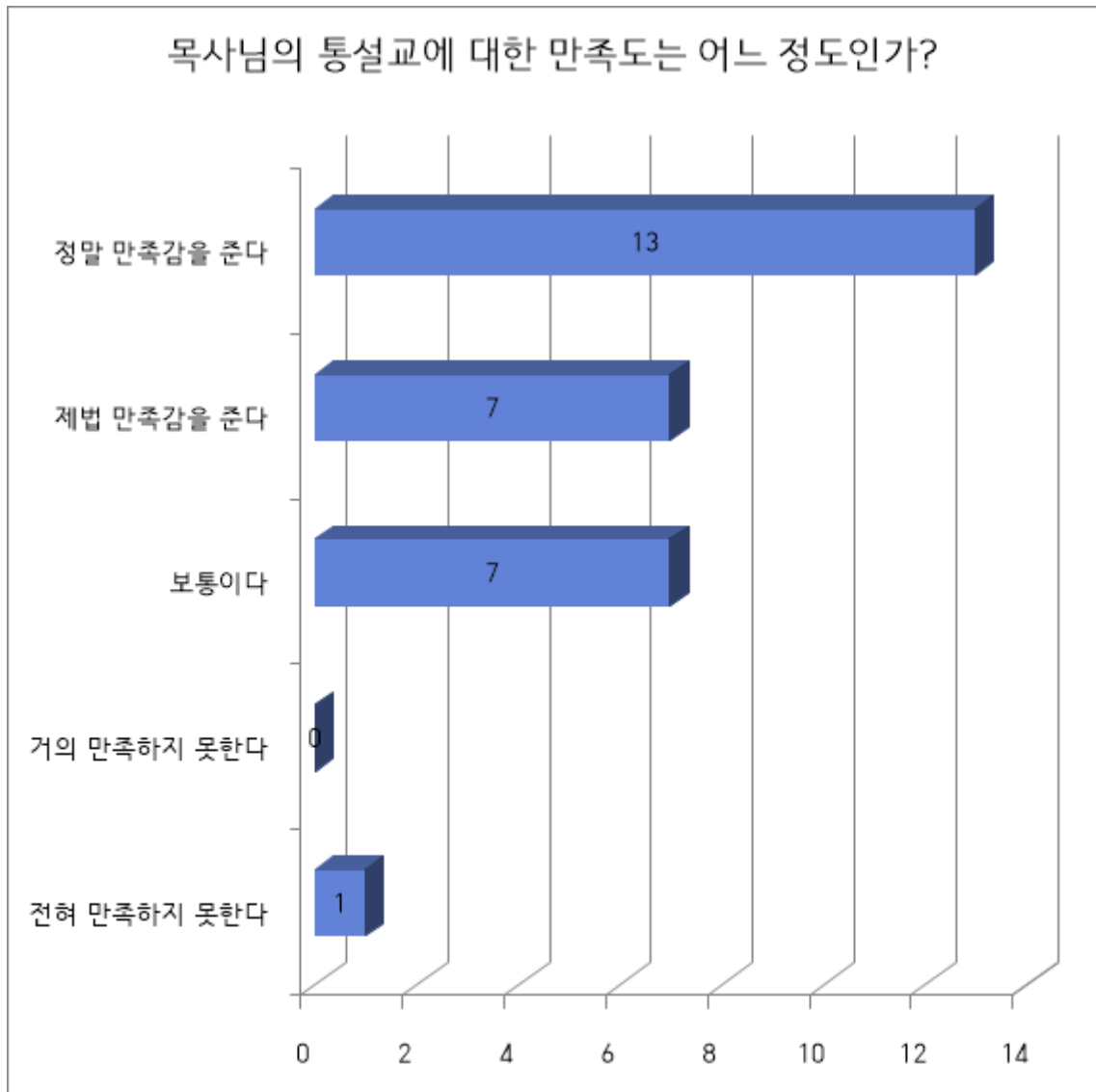
<표 11> 목사님의 통설교를 듣고 난 후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



통설교를 듣고 난 후에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5.7%의 응답자가 정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했고, 21.4%가 제법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35.7%의 응답자가 보통이라고 대답했는데 아직까지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

한 모습들이 보이는 학생들도 더러 있기에 이같은 대답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위 데이터를 볼 때에 통설교를 통한 생각의 변화가 60%가까이 된다는 것은 유의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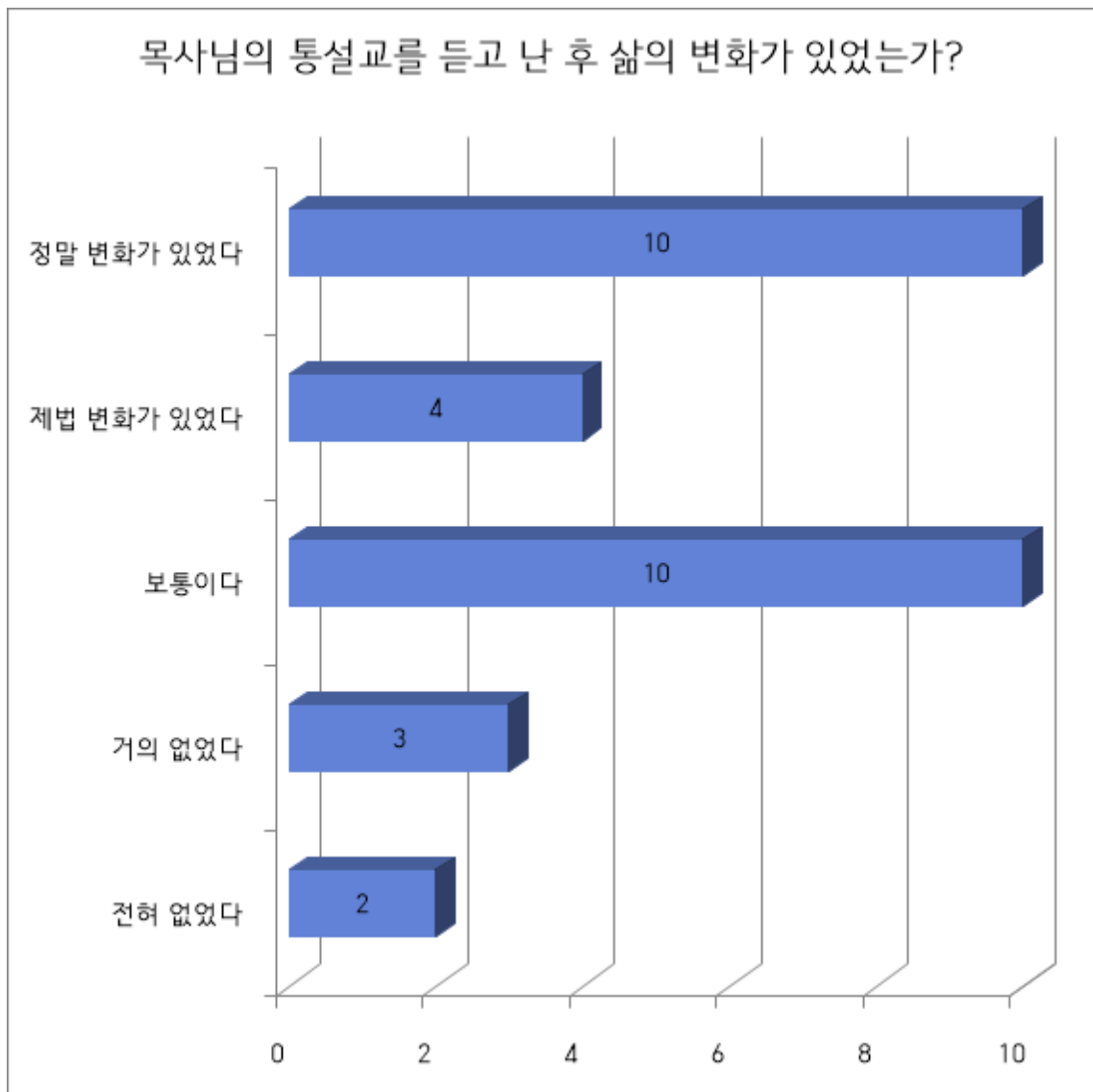
<표 12> 목사님의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총 28명의 응답자 중 71.4%가 정말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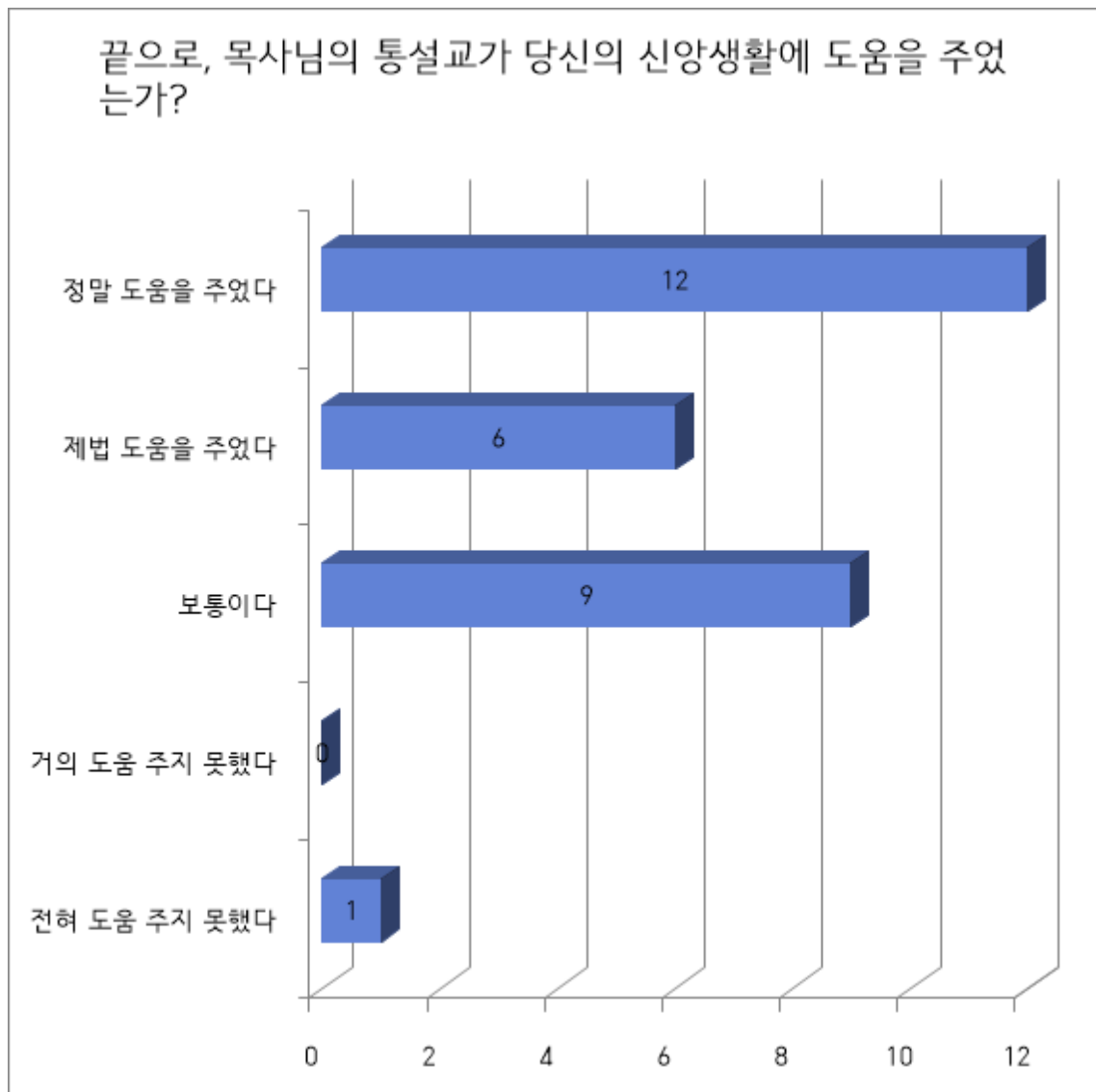
족감을 주었거나 제법 만족감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통설교를 하고 난 후에 몇 번의 피드백이 있었는데 “설교가 기다려진다.” “설교가 재미있어졌다.” “들을만 하다.” 는 얘기를 하였다. 그런 것을 보면 통설교가 학생들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13> 목사님의 통설교를 듣고 난 후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이 질문은 통설교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응답자의 삶에 말씀을 실천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것이다. 28명의 응답자 중 절반의 수치인 50%가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통설교를 듣고 삶의 실천 경험이 없는 응답도 17.8%가 나왔다. 이 수치를 분석해 볼 때 통설교가 분명히 학생들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4> 끝으로, 목사님의 통설교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는가?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솔직하고 깔끔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준비한 문항이다. 사건 다 떼고 좋았냐 안좋았냐를 묻은 질문이다. 28명의 응답자 중 64%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다고 대답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도 32.1%가 있었다. 그러므로 대략 3분의 2에 해당하는 학생이 통설교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었음을 응답해주었다. 이로 볼 때에 통설교가 MZ세대와 Z세대인 젊은이들에게 확실히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 있었다.

평가(인터뷰)

연구자는 설문지 조사 이후에 더 심층 있는 평가를 이끌어내고자 2024년 2월 18일에 설문지를 작성한 이들 중 3명의 학생들에게 더 심도 깊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의 내용을 소개하며 연구자의 논문에 이 글이 실릴 것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차원에서 대상자의 성 씨만 공개하고 이름은 삭제했다. 이하의 나올 심층 인터뷰 내용은 철저히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에 한정되어 조사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교회의 상황을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질문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통설교를 들으며 어떤 점이 유익했는가?
- 2) 통설교를 들은 후 느꼈던 점이 무엇인가?
- 3) 통설교를 들은 후에 각오를 다짐한 적이 있는가?
- 4) 통설교의 아쉬운 점이 있었는가?

<인터뷰 내용>

이민호 목사: 목사님이 지금까지 『통성경 길라잡이』 책을 중심으로 하여 통설교를 진행해 왔는데 복잡한 얘기 빼고, 통설교가 어떤 느낌이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생: 사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설교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 어렸을 때 대충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 더 자세하고 한눈에 들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 학생: 약간 상황극 같은 느낌이랄까? 성경 본문의 내용을 상황에 맞게 이야기처럼 잘 설명해주셔서 설교에 재미를 느꼈습니다.

방○○ 학생: 공감이 잘 되는 설교였습니다. 통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안의 내용 흐름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니 이해가 빠르고 그 이야기에 더 잘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민호 목사: 통설교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이 주를 이루고 있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 목사님께서 통으로 하는 설교를 할 때 각자 자신들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었는지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성은 여러 갈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삶적인 부분도 있을거고, 설교의 스킬적인 부분도 있을거고, 공감적인 방향성일 수도 있는데, 한 사람씩 얘기해 볼까요?

방○○ 학생: 저는 이제 신앙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기준을 얻게 될 수 있었고요. 제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 주제로 인해서 인생에서 지혜를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성경 읽기법을 통하여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알게 되

어서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학생: 사람이 커가면서 머리도 같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고가 더 넓어지게 되는데, 어릴 때는 애니메이션 만화 같은 걸로 이해하면서 대충 대충 성경 내용을 보고 이해했는데 이제는 생각하는 사고가 넓어지니까 통설교를 들으면서 더 자세하게 이해하게 되고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가고 했던 점이 저에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이○○ 학생: 저도 생각한 것이 조금 겹치는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렇게 들어왔던 설교가 지금은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아직도 성경의 지식이 부족하긴 하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더 성경의 지식을 자세하게 알게 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호 목사: 감사합니다.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통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고 깨달은 것을 넘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게 된 부분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학생: 사실 저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그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설교 들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벗어나면 이게 한순간에 오늘 들었던 말씀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지금까지는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니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무게를 두게 되고 앞으로는 헌금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또 얼마 전에 인간관계가 참 어려워져서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화해를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와 관계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방○○ 학생: 저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학교에서 역사 선생님이 역사 교과서를 펴놓고 가르쳐주는 것처럼 성경책 역시도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래된 과거의 역사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로 아는 것이 역사 이야기인데 성경의 역사 역시도 목사님이 이렇다 하니까 이런 줄로 그냥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통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의 역사를 찬찬히 짚어 나가니까 그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은 정말 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학교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고 전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 학생: 저는 들었던 설교말씀들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신앙적으로 더 내 삶에 성경을 녹아낼 수 있을가를 고민하다가 올해부터 성경을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쓰면서 말씀을 내 속에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호 목사: 아유 듣기만 해도 참 감사한 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들 통설교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모든 설교가 좋기만 하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뭔가 맘에 안드는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데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 학생: (한참을 고민해보다가) 저는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통설교를 이야기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너무 잘 설명해 주시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재밌는 설교였습니다.

하○○ 학생: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려면 목사님의 설교를 비

판하면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면서 듣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학생: 저는 아직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부족한데 별로일 내용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민호 목사: 잘 알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설교가 여러분들의 신앙발달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3인의 대답: 네!

이민호 목사: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소중한 의견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V 장

결론

요약 및 평가

본 연구는 현대 시대에 불통이라 사료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MZ세대에게 ‘통(通)성경에 기반한 통(通)설교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더 이상 성경이 이들에게 어려운 책이나 소화하기 힘든 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MZ세대들의 생각과 인생을 바꾸어줄 수 있는 충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발견했기에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논문을 시작하였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두 줄기의 설교방식 주체설교와 강해설교를 다루며 두 설교 방법의 장단점을 살피는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두 가지 다 효과적인 설교임이 이미 현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기에 두 가지 설교 방식의 장점을 가져오면서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설교가 바로 통(通)설교임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통설교가 젊은 MZ세대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가기에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이 성경에 대한 생각과 사고의 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통설교가 젊은이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효과적으로 이해하며 또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했다. 이어서 본 연구의 방법을 설명하였고, 연구의 제한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MZ세대의 이해’ 라는 제목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MZ세대를 연구한 책들을 중심으로 하여 개념을 정리하였다. MZ세대의 정의가 무엇인지, MZ세대의 특징은 무엇인지, 기성세대가 바라보는 그들은 어떤 세대인지, MZ세대 자신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MZ세대를 지나 잘파(Zalpha Generation)세대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것을 연구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통(通)설교의 이해’ 라는 주제로 통성경의 정의와 통설교가 회중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통설교가 왜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통설교는 성경을 파편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열어준다는 것에 탁월성을 제시하며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연구로 기성세대를 대상으로도 말씀학교를 진행하며 통성경의 탁월성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 통설교의 방식이 타의 설교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연구자가 섬기고 있는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MZ세대가 통설교를 이해한 내용을 연구하고 그에 대한 적용과 실행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1년 52주 과정 동안 통설교에 대한 내용이 어떠했는지를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했을 때 ??%가 통성경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인터뷰를 한 세 명의 학생에게도 통설교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결론과 제언

지금도 설교에 관한 중요성을 논하라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설교는 많은 이들의 잠자던 영혼을 일깨웠고, 성도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그의 평생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도구가 설교다. 성경에서도 보면 모세의 설교와 에스라의 설교가 한 민족의 방향성을 결정하기도 하고,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 선포³⁹가 한 영혼의 육체적 회복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을 보지 않는가.

성경을 주제설교와 강해설교로 과편화해서 MZ세대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시간과 양은 몇 년이 흘러도 모자랄 것이다. 그들은 지루하면 참지 못하는 세대들이다. 그러나 통(通)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통(通)설교는 청소년부 설교 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매우 효과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이다. 그렇게 1년만 꾸준히 진행하여도 저들은 성경을 가슴에 품을 수 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연구자가 이 연구를 처음 진행했을 때는 두려움이 제일 먼저 앞섰다. MZ세대인 친구들이 통설교를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와 전혀 처음 들어보는 통성경의 방식을 낯설어하지는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1년간 열심히 진행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가 잘 안되고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존 성경공부 교재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설교의 집중도나 이해도는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음을 보였다.

이 연구는 분명히 한계성이 있다. 주문진감리교회라는 개체 교회와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라는 제한적인 인원이 이 연구의 참여된 인원이기에 한국 교회 모든 이들에게 객관화 시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이라도 통설교를 들었을

³⁹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사도행전 3:6)

때 자신에게 많이 도움이 되었고 신앙발달에 분명한 힘이 되었다고 말한 근거를 보아 통설교는 MZ세대에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력이 미쳐졌음을 발견한다.

연구자는 통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통설교를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려 한다. 한 명이라도 통설교에 긍정적인 대답이 나왔다면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어가려고 한다. 이 논문이 MZ세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보고 또한 가슴 속에 품음으로 다음 세대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아주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보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번역서적

- John Stott. *설교자란 무엇인가*. 채경락 역. 서울: IVP, 2010.
- John Piper. *하나님을 설교하라*. 박혜영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2.
- Ronald J. Allen. *강단의 비타민, 주제 설교의 재발견*. 김창훈 역. 서울: 도서출판 솔로몬, 2010.
- Haddon W. Robinson. *강해설교*. 박영호 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3.

한국어서적

- 정인교. *설교학 총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계지영. *현대설교학개론*.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 김서택. *강해설교의 기초:이론편*. 서울: 주식회사 흥성사, 2001.
- 이동원. *칭중을 깨우는 강해설교*. 서울: 요단출판사, 1990.
- 김영기. *MZ세대와 끈대 리더*. 서울: 좋은땅, 2022.
- 이호건. *조용한 퇴사*. 서울: 월요일의꿈 2023.
- 이은경. *흩어진 MZ세대와 접속하는 교회*. 서울: 콤파출판사, 2023.
- 황지영. *잘파가 온다*. 서울: 리더스북, 2023
- 이시한. *이제는 잘파세대다*. 서울: (주)알에이치코리아, 2023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08.
- 조병호.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04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박영재. *원 포인트로 설교하라*. 서울: 요단출판사, 2018

정인교. *현대설교, 패턴으로 승부하라*. 서울: 청목출판사, 2010

이덕주. *영의 사람 로버트 하디*. 서울: 밀알북스, 2021

박삼열. *주문진교회 112년 역사*.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주문진교회, 2013

Website

<https://blog.naver.com/happyliife9418524/223236998980>

<https://namu.wiki/w/%EC%9C%A0%ED%8A%9C%EB%B8%8C>

https://ko.wikipedia.org/wiki/%EC%9C%A0%ED%8A%9C%EB%B8%8C_%EC%87%BC%EC%B8%A0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4953>

부록 I .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예배 통설교에 관한 설문지

[논문 주제] 통설교가 MZ세대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

소개:

이 설문은 ‘통설교가 MZ세대 신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수행되었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

귀하의 응답은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며, 어떠한 개인 정보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질문:

1. 당신의 성별은?

남성

여성

2. 당신은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되었나?

모태신앙

1-3년

4-6년

7-10년

10년 이상

3.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 말씀
- 찬양
- 기도
- 교육
- 선교

4. 예배 중의 설교가 신앙생활의 잘함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중요하지 않다
-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 보통이다
- 제법 중요하다
- 정말 중요하다

5. 통설교라는 설교방식을 알고 있는가?

- 전혀 모른다
- 거의 모른다
- 어디서 들어본 적 있다
- 들어서 알고 있다
- 잘 알고 있다

6. 목사님이 진행한 통설교 방식이 기존의 설교방식보다 집중이 더 잘 되는가?

- 통설교가 집중이 더 잘된다
- 기존 설교방식이 집중이 더 잘된다
- 둘 다 집중이 안된다
- 둘 다 집중이 잘된다
- 잘 모르겠다

7. 목사님의 통설교를 듣고 난 후 생각에 변화가 있는가?

- 전혀 변화가 없었다
- 거의 변화가 없었다
- 보통이다
- 제법 변화가 있었다
- 정말 변화가 있었다

8. 목사님의 통설교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 거의 만족하지 못한다
- 보통이다
- 제법 만족감을 준다
- 정말 만족감을 준다

9. 목사님의 통설교를 듣고 난 후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 전혀 없었다
- 거의 없었다

- 보통이다
- 제법 변화가 있었다
- 정말 변화가 있었다

10. 끝으로, 목사님의 통설교가 당신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었는가?

- 전혀 도움 주지 못했다
- 거의 도움 주지 못했다
- 보통이다
- 제법 도움을 주었다
- 정말 도움을 주었다

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추가로 의견을 나누고 싶거나 질문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II. 통설교 원고

제목: 복의 시작

일자: 2024년 2월 2일

본문: 창세기 12장 1-9절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공동체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창세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의 원역사, 12장부터 36장까지의 족장사, 37장부터 50장까지 입애굽과 민족이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고작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지만 이 원역사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탄생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하려고 몸부림 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뜻을 오히려 거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꽤 많이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그 문화와 우상을 더욱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요? 노아만큼은 세상보다 그들의 문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노아는 하나님의 이 땅을 물로 심판하겠다는 계획을 알 수 있었고 그는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어가면서 욕이란 욕은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하게 들었지만 결국은 은혜로 홍수를

피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끝내 그들을 흠으실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에벨의 아들 벨렉의 시절 때입니다. 자, 조금 어색한 사람의 이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자손들, 특히 셈, 함, 야벳 세 아들로부터 족보를 쭉 훑어가다가 10장 25절에 가니까 에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그의 아들 벨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성경은 이 사람 뒤에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 때에 세상이 나뉘었음어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뉘었다’ 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흠쳐놓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구체적인 얘기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살아갔고, 이제는 더 나아가 내가 신처럼 되어보자! 내가 저 하늘의 주인이 되어보자! 내가 저 높은 곳을 정복하자! 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여움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흠음과 동시에 하나였던 언어를 수많은 언어로 바꾸시며 서로 소통할 수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았다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생각해볼 만도 한데...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많은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당신의 원대한 뜻을 밝히시고 그로 하여금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으니 그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였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5절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을 등장시키는데 성경의 학자들의 얘기는 데라 역시도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던 가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과 문화가 젖은 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사 그를 시작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아브람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마침내 그를 복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가 어디 복의 근원이 될만한 조건이 있는지 도저히 찾기가 힘들지 않으십니까? 감히 내 삶을 들어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될만한 자격들이 있는지, 무엇을 내세워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복의 근원이 될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아마 어느 한 사람도 당당하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람을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아브람도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큰 계획을 꿈꾸셨듯이, 여러분들도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기를 소망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1. 아브람은 일단 순종하고 본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길래 따라갔죠? 어떻게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기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생각해봅시다. 아브람에게 이 말은 고민이 되는 말일까요. 고민이 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날 문득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합니다. 이게 고민이 안되는 말이에요?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크나큰 존재인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자라온 아브람이, 아버지의 문화를 배우고 자라온 아브람에게 “아버지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말했을 때 고민이 안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로부터 잘 배워온 자식이라면 더더욱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와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든 자기 멋대로 쉽게 결정하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이내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즉, 이 말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본 겁니다. 이것저것 재지 아니하고 곧장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각오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 순종이랑은 거리가 먼 자들은 복의 근원은 꿈도 꿀 수도 없을뿐더러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역사도 내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였습니다. 백날 올려드리는 마음 없이 앉아 있는 예배보다, 본인의 생각에 마음대로 하고, “나는

내 기준이 있어요!” 하는 예배형식보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백번 낫습니다. 얼마나 예배 가운데 아무 생각도 없이, 들을 마음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의도도 없이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울에게 화가 나셨으면 그냥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사님은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 주문진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이 부분은 특별히 예배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생에 아버지의 위상 문화에서 보고 배우며 자라온 사람인데 육신의 아버지의 그늘을 떠나 하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간 그의 삶의 기준은 예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였다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그랬는데... 우리는 공부가 너무 바빠서,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거리가 멀어서, 갖가지 이유와 조건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주일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은 대단히 오류가 큰 생각입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스스로 예배하면 되지 않냐?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곳으로 와서 너희 자신을 내게 보이라 하셨고, 예배하는 자들은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계신 성전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 그 힘을 가지고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또한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 의미를 모른채 삶의 예배라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여 많이 악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예배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아듣고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사무엘의 요청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얘기를 잘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해석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그의 왕권이 다음 사람인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안타까움을 당하게 되지요.

아브람은 거주하는 장소가 옮겨졌어도 계속해서 예배하였고, 예배한 그 자리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들은,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문진감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복의 시작이

되려면 첫 번째, 일단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충실하는 겁니다. 공부와 학원 때문에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하루 살아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가는 어떤 장소마다 거기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하면 복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목: 그대로 행하시니

일자: 2023년 2월 10일

본문: 사사기 6장 36-40절

할렐루야! 즐겁고 신나는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수련회 1박 2일간에 엄마 걱정, 아빠 걱정, 동생 걱정, 누나 걱정, 오빠 걱정, 형 걱정일랑 다 내려놓고 진짜 재밌게 놀다가는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나한테 30분만 투자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이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잘 들어주길 바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기드온이란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군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성격이 의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을 찾아왔는데 “만약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내가 예물을 준비해올테니 맞다면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해 온 예물을 바위 위에 올려놓고 지팡이의 끝을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받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 보이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여호와 샬롬’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확실한 증표를 받았습니까, 못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의심이 한방에 걷힐 만도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였는데도 그의 의심은 오늘 본문인 6장 후반부에서도 재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일보직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둘건데 여기에는 이슬이 맺히고 땅은 마르게 하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 이러한 요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술 부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더 웃긴건 그 다음날은 반대로 요구를 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이번에는 양털 뭉치는 마르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 기드온 옆에 기드온 어머니나 할머니가 계셨으면 다짜고짜 등짝을 짹!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구! 하나님이 한번 니 기도에 응답해주셨으면 됐지, 또 쓸 때 없는거 얘기나 하고 앉았나?! 무슨 그런 영양가 없는 기도를 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쩔 때는 이렇게나 의심이 많을까 싶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며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기드온보다 더 한 사람이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의 소유가 넘침으로 인하여 분가를 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이 서로 땅으로 싸우는구나. 우리는 이제 떨어져 살아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땅이 어디였습니까? 물이 풍부한 요단 지역, 아름다워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 앞에 너무 악했잖아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이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섯 번에 걸쳐서. 세상에... 기드온보다 더해요! “하나님 의인 50명은 어떠신지...” “하나님 의인 5명이 부족한 45명은 어떠신지...” “하나님 의인 40명은 어떠신지...”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의인 30명은 어떠신지...”

“하나님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의인 20명은 어떠신지...” “하나님 정말 노하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은 어떠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6번씩이나 요구사항을 옳고 계속해서 다른 얘기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어찌라고! 말하고자 하는게 뭐야?” 라고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어떠하셨습니까? 그 모든 간구를 이해해주셨고, 받아들여 주셨고, 그의 요구대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요구사항을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괜히 아브라함이 부러웠습니다. “이야! 아브라함은 좋겠다~ 저렇게 귀찮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시고 들어주시네?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 했는데 문득 제 머리를 스쳐 가는 저의 과거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 때는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서 기도 중에 처음 그 마음을 받았더랬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고, 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주의 길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확실한 마음인가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분위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6살의 아이는 그렇게 수련회를 마치고 내려왔고 자기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그 꿈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지나 또 수련회 시즌이 찾아왔고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의 신분으로 그해 1월 학생부 겨울수련회를 참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왔던 비전을 떠올리며 내가 주의 길을 가야 되는건지에 대한 재차 답변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때 수련회 프로그램이 뭐였는가 하면 야외 잔디밭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겨울 추운 날 밤 9-10시 되는 그 시간에 중학생 고등학생

선생님들 담당 전도사님이 옷 꺾고 챙겨입고 나가서 마당 잔디밭에 꿇어앉아 통성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잔디밭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주여! 외치고 애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역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는 건지, 이 길이 맞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역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길을 가길 원하신다면 저 밤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십시오.” 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로 하트를 보여주셨다기 보다는 그 순간 저에게 의심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100프로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저는 그날로 이 응답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끝난 뒤 집에 내려가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의 길을 가려 합니다. 신학을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대요. 철딱서니 없는 아들놈이 수련회 갔다 오니까 은혜를 받았는지 헛소리를 하네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재차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목회의 길을 가야겠다고. 그때부터 부모님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를 얹혀놓고 설득을 시킵니다. “민호야, 그 길이 쉬운 길인 줄 아나.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니대이~ 역수로 힘든 길이다~ 다시 생각해봐라~ 다른거 할 일 많다.” 그런데 저는 이 길에 대한 분명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제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다가 고3 때 한 번 고비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악기를 조금 다룰 줄 아니까 찬양사역 쪽으로 비전을 바꿔볼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소원이 아들이 찬양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셨었거든요. 그때 유명했던 찬양사역자가 다윗과 요나단, 소리엘, 김석균 이런

분들이셨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제가 찬양사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한번도 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음악을 하고 싶은데 이 길로 가도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방 제 생각을 돌려놓으시더라고요. “응 아니.” 저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의 20살의 첫 사역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저도 꽤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 앞에 증표를 달라는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맞으면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으면 확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맞으면 이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의 증표를 달라는 요구에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책망 없이 “이거! 이거!” 하면서 자신의 뜻을 정확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올곧은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관념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오히려 거리 두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마치 아버지와 자식은 겸상도 못하는 관계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 그분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살아 숨 쉬는 것도 버겁고 부담스럽게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당신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려고 애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과는 상종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지만,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격을 세우시고 우리들에게 경우를 일일이 따지는 분이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기쁨으로 수련회를 하며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마당도 못 밟았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너를 친구로 불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로 불렀고 영원히 주의 나라에서 함께 기뻐 지낼 백성으로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닌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의심을 품는 기드온에게, 몇 번이고 기도제목을 바꾸어 자신의 목적을 어필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부족한 이민호 목사의 앞길에 보이신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OKEY!” “이거야!” “맞아!” “좋아!” “알겠어!” 였습니다. 기드온이 말합니다. “하나님, 양털에 이슬이 맺히고 바닥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OKEY!”, “하나님, 이번엔 반대로...” “알겠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50명요.” “OKEY!” “45명은...” “알겠어!” “40명은...” “좋아!” “주님 노하지 마시고 30명은...” “그러!” “주님 20명은...” “그렇게 해줄게!” “주님 정말 마지막으로 10명만...” “알겠어!” 이민호 학생이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맞아! 바로 그거야!” “하나님, 음악이 좋아서 그런데 음악해도 될까요?” “응. 아니. 이 길!” 하나님은 인간의 되질문에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물으면 묻는대로 다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교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으신거죠. 시시한 일상의 대화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여쭙고 물어보는 일에 대해서 결코 어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용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여쭙어보세요. 묻는 족족 하나님께서

대답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주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렇게 요구할 때 이렇게 행하여 주셨고 저렇게 물을 때 저렇게 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질문을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안달이 난 분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의 믿음에 신앙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응답이 많이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여 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축복이 우리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 유다 지파의 왕이 된 다윗

일자: 2023년 4월 8일

본문: 사무엘하 2장 1-7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통으로 보는 시각을 길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운명함으로 이스라엘의 가세는 크게 기울었습니다. 블레셋은 축제의 현장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상황을 가장 애통했던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비록 자기를 죽일 듯이 쫓아 다니면서 음해하려고 했던 사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종이 안타깝게 삶을 마무리 함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그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요 형인 요나단이 죽었다는 사실에 더 오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활’이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26절 말씀이었죠.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것이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 라고 그랬는데 그 후라는 것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블레셋 아기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울의

영향력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의 존재는 없습니다. 고향 땅 안으로 들어가도 자신을 해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블레셋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응답이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그럼 일단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확정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네로 가야하냐는 말이죠. 거기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쭙어봅니다.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짐으로 다윗이 그의 두 아내와, 또 자기와 함께하는 무리들을 다 데리고 고국의 헤브론으로 이주하였고 거기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에 헤브론이 도착할 무렵 유다 사람들이 나와서 거기서 다윗을 영접하고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안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내가 알아보니까 사울 왕을 장사한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다윗이 반응하였습니다.

“전령들을 보내어 말하라. 너희가 사울에게 이같이 은혜를 베풀어 장사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이 선한 일에 대하여 갚으리니 이제는 너희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제 내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여러

가지 내용 중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 여호와께 여쭙는 다윗

많은 실의에 빠진 다윗이 나라가 무너진 절망과 동료의 죽음을 경험한 뒤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나 하면 여호와께 여쭙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내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슬프면 다 내던져버리고, 맘에 안들면 다 내던져버리고, 낙심하면 내던져버리고, 상처 받으면 내던져버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될대로 되라지!’ 하며 쉽게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가시를 내세우며 방어기재를 펼치고, 이때 누구 하나라도 내 기분을 틀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감정을 무기화 시켜서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그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했던 행동은 여호와께 여쭙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 다 내던져버리고 될대로 되라지 하면서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의 행보를 여쭙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되지?’ ‘나는 이때 무슨 선택을 해야 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막연한 두려움 속에 마냥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해답을 물었던 것입니다.

참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과 다윗의 대화가 티키타카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할 때 양방향 일회성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간증들이 거의 대부분 왔다갔다 1회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한번 기도했을 때 한번 응답주시는 그런 단순한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라.” “하나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티키타카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춘기 자녀들과의 일회성 대화가 아니라 마치 탁구에서 선수들이 공을 가지고 계속 주고 받는 것처럼 말이죠.

청소년부 여러분, 목사님은 여기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런 티키타카가 되어야 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실 때 있었던 그 직통연결인 느낌…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뭐 이런 수식어 안 붙여도… “하나님 그거 왜 그래요?” 라고 물으면 “아 그건 이런거야~” 라는 그런 평상의 대화들… 그런 대화들이 이어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저렇게 해주시옵소서! 와! 응답받았다 하나님 감사해요! 끝.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얻어야 하는 것에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요청하지, 그게 아니고는 하나님과 별다른 소통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을 놓고나 기도하지 평소에 하나님의 안부를 묻는 기도나 해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은 늘 잘 지내시니까… 잘 못지내실 리가 없으니까… 라는 변명을 앞세워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윗은 여쭙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쭙었습니다. 한마디 던지고 한마디 응답 받았다고 거기서 끊어지는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매순간 하나님께 여쭙어봄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주문진교회 청소년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여호와께 순종하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힘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요 또한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을 가장 잘 아시기에 그에 맞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응답을 탐탁치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함을 알죠. 하나님은 니가 이해해라 하시고, 니가 속이라 하시고, 니가 용서해라 하시고, 니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를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요, 제 인생 전부가 몇날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보고 “가서 저 사람 반 죽여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번도 없으십니다. 저보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면 하셨지, 단 한번도 가서 혼썰을 내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기도의 응답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고요, 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응답을 못 받아들여요. 내 마음은 이미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용서할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용서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저 사람 어디 길 가다가 한번 크게 나자빠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어야 할진대 순종하지 못할거면, 아니 순종하지 않을거면 왜 기도합니까. 순종하지 않을거면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알려주셔도 그렇게 행하지 않을건데 왜 하나님께 물으십니까. 이것이 인간의 참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다윗이 유다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 대한 나뭇대로의 자신의

지식과 로드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디가 가장 안전하고 요새의 지역인지 다윗이 이미 다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한걸음 한걸음 또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쭙으셨으면 그대로 실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꾸 밀당을 하며 위치 선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쭙으셨으면 알려주시는 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최선을 것으로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일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하셨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쭙는 것과 순종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을 보였고 결코 자기의 임의대로 행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최선의 방법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결국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짐을 보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여쭙시고 물어보시고, 또 그 응답을 들었으면 그대로 실행함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하루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Minh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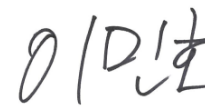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Kimhae, South Korea, Jun 14, 1986

Parent`s Names: Deokhwan Lee and Jeonghae Le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Changwon Jungang High School 16, Yongho-ro, Seongsan-gu, Changwon-si, Gyeongsangnam-do, Korea	Diploma	Feb 16, 2005
egiate: Mokwon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B.A	Feb 17, 2011
Graduate: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Th.M	Feb 21,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Minho Lee

Name typed

February 15, 2024

date